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요약본

2016

사람과 지구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요약본



사람과 지구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

이 보고서는 국제 사회를 대표하여 유네스코가 발간하는 독립 출판물로서, 보고서팀과 그 밖의 많은 관계자, 단체, 기관과 각국 정부 등이 참여한 공동 작업의 소산입니다.

이 보고서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는 어떤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그 당국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대한 유네스코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요약본에 포함된 내용의 선택과 의견에 관한 책임은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팀에 있으며, 유네스코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거나 유네스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보고서의 관점과 견해에 관한 종합적 책임은 보고서팀 팀장에게 있습니다.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팀

팀장: Aaron Benavot

Manos Antoninis, Madeleine Barry, Nicole Bella, Nihan Köseleci Blanchy, Marcos Delprato, Glen Hertelendy, Catherine Jere, Priyadarshani Joshi, Katarzyna Kubacka, Leila Loupis, Kassiani Lythrangomitis, Alasdair McWilliam, Anissa Mehtar, Branwen Millar, Claudine Mukizwa, Yuki Murakami, Taya Louise Owens, Judith Randrianatoavina, Kate Redman, Maria Rojnov, Anna Ewa Ruskiewicz, Will Smith, Emily Subden, Rosa Vidarte and Asma Zubairi.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는 독립적인 연간 발행물로서, 각국 정부, 다자간 기구, 민간 재단 등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담당하고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team
c/o UNESCO,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Email: gemreport@unesco.org
Tel.: +33 1 45 68 07 41
www.unesco.org/gemreport
https://gemreportunesco.wordpress.com

© UNESCO, 2016
All rights reserved
First edition
Published in 2016 by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표지 및 뒷표지 사진: Faziz Aziz/Alcibbum Photography

표지 사진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의 토게안 군도 팔라우 파판 섬에 사는 학생들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바조족 출신으로 수상가옥에 살면서 매일 총 길이 1.8km에 달하는 다리를 건너 인근 멜란게 섬에 있는 학교에 갑니다.

한국어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펴낸이 | 김광호
기획 | 서현숙, 이지은
번역 | 신중범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이메일 | education@unesco.or.kr
웹사이트 | www.unesco.or.kr

ISBN: 978-89-94307-70-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ED/2017/BK/1

인쇄 후 발견된 오류나 누락 사항은 온라인 판(www.unesco.org/gemreport)에서 바로잡을 것입니다.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목록

2016 Education for people and planet:
Creating sustainable futures for all

EFA 세계 현황 보고서 목록

- 2015 Education for All 2000-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 2013/4 Teaching and learning: Achieving quality for all
- 2012 Youth and skills: Putting education to work
- 2011 The hidden crisis: Armed conflict and education
- 2010 Reaching the marginalized
- 2009 Overcoming inequality: Why governance matters
- 2008 Education for All by 2015: Will we make it?
- 2007 Strong foundations: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 2006 Literacy for life
- 2005 Education for All: The quality imperative
- 2003/4 Gender and Education for All: The leap to equality
- 2002 Education for All: Is the world on track?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사람과 지구를 위한 교육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 : 요약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 서울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p. ; cm. --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 2016)

원표제: Education for people and planet : creating sustainable futures for all

원저자명: UNESCO

영어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

ISBN 978-89-94307-70-1 03370 : 비매품

세계 시민 교육[世界市民教育]

370.13-KDC6

370.116-DDC23

CIP2017009323

발간사

2015년 5월 대한민국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단일 목표 아래 160개국 1,600명의 참가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교육 2030 인천선언’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보장”이라는 교육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유네스코에 교육 2030 의제의 주도, 조정, 모니터링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또한 앞으로 15년 동안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이하 GEM 보고서)가 교육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SDG 4)과 그 밖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보고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의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정보와 심도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6 GEM 보고서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표와 세부목표에 바탕을 두고 형평성과 포용을 전체적인 성공의 척도로 보는 가운데,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SDG 4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세 가지 메시지를 특히 강조합니다.

첫째, 새로운 접근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입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저소득국가 아동의 70%만이 초등교육을 이수할 예정인데, 이 목표는 2015년에 달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 정책, 혁신, 자원 등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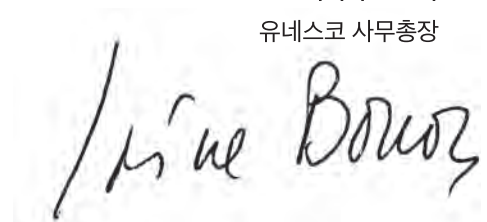
둘째, SDG 4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고양된 긴급성 의식과 장기적인 노력 등을 바탕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에 역효과를 낳고 빈곤 감소, 기아의 퇴치, 보건 향상, 성평등, 여성의 권한 강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회복적 대응력을 갖춘 도시, 좀 더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 등 각각의 발전 목표를 향한 전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복지와 전 지구적 발전에서 교육과 그 역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올바른 형태의 기술, 태도, 행동을 촉진할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 효과적이고 부문을 넘나드는 파트너십의 구축을 의미합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는 인간의 존엄, 사회적 포용, 환경 보호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성장이 불평등을 심화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이룩하는 미래입니다. 이 번영은 도시 지역과 노동시장이 모든 사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기업적 경제활동이 녹색 지향적인 성격을 띠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건강한 지구 없이는 인간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하나의 믿음입니다. 새로운 SDG 의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전 생애 동안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을 숙고해야 합니다. 올바르게만 진행된다면 교육은 그 어느 무엇보다 자력화되고 성찰적이며 참여적이고 기술을 갖춘 시민이 모두를 위해 좀 더 안전하고 녹색 지향적이며 공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새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모두를 위해 그것을 실현할 정책을 다듬는 데 필요한 관련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서문

2016 GEM 보고서는 완성도가 높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보고서는 대단한 보고서입니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용기를 꺾기도 합니다. 교육이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얼마나 SDGs 달성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SDG 4 달성을 위한 역사적인 행동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GEM 보고서는 교육이 어떻게 모든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권위 있는 설명입니다. 더 나은 교육은 더 큰 번영, 농업의 개선, 보건 성과의 향상, 폭력의 감소, 더 진전된 성평등, 높은 사회자본과 자연환경의 개선 등으로 이어집니다. 교육은 왜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개념인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데 핵심적인 것입니다. 교육은 SDGs를 성취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심지어 윤리적인 핵심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보고서 전반에 걸쳐 매우 독특하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표, 그래프, 본문들이 우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세계의 교육 현실과 2030년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되는 전망치 사이에 현저한 간극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교육적 성취에 있어서 부자와 빈자, 나라 안과 나라 간의 이러한 차이들은 매우 놀랍습니다. 많은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아동들은 오늘날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에 책이 부족합니다. 유치원에 다닐 기회가 없습니다. 전기, 물, 위생, 자격을 갖춘 교사, 교과서, 그 밖의 기초교육을 위한 다른 부속품이 없는 교육 시설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SDG 4는 2030년까지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적인 이수를 요구하지만 오늘날 저소득국가에서 이수율은 14%에 불과합니다(보고서 전문의 표 10.3 참조).

GEM 보고서는 현재의 경로에서, 아니면 심지어 해당 지역에서 가장 빨리 향상되고 있는 나라에 부합하는 경로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2030년 목표에 다다를지를 정하기 위해 중요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듭니다. SDG 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해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SDG 4는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그러한 현실 안주가 무모하고 도덕적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현재의 청년 세대를 적절한 학교교육 없이 방치한다면 그들과 세계를 미래의 가난, 환경적 병리 현상, 심지어 사회적 폭력과 다가올 수십 년의 불안에 영원히 묶어두는 셈이 됩니다. 현실 안주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의 메시지는 우리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함께 행동해 교육적 성취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속화를 위한 핵심사항 중 하나는 자원조달입니다. 이 점에서 이 보고서는 또다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읽을거리입니다. 오늘날 교육에 대한 개발 원조액은 2009년보다 낮습니다(보고서 전문의 그림 20.7 참조). 이것은 부자 나라가 갖고 있는 중심을 잃은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공여국들은 진정 그들이 전 세계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교육 원조를 줄임으로써 “돈을 절약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인가? 이 보고서를 읽고 나면 고소득국가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은 교육 투자가 전 세계 복지의 근간임을,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발전과 평화를 고려한다면, 초등교육 대상 한 해 약 50억 달러에 이르는 현재의 원조 수준은 비극적으로 작은 투자임을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2016 GEM 보고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통찰력, 권고, 표준을 제공합니다. 또, SDG 4의 전개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값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오늘날 의존하는 취학률과 이수율 등 단순한 기준 대신, 교육 투입, 질, 성취 등에 대한 훨씬 더 정교한 기준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빅 데이터, 좀 더 개선된 조사 도구, 시설 모니터링,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한다면 모든 수준에서 교육과정과 성과에 대한 한층 더 섬세한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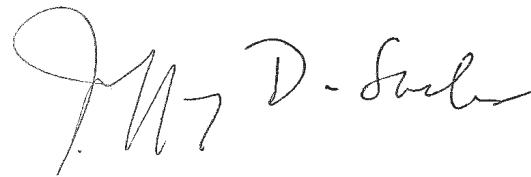
15년 전 세계는 마침내 에이즈(AIDS)와 다른 보건 긴급상황의 창궐을 인식했고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맥락에서 공중보건 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결핵·에이즈·말라리아 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주요 사업과 여타 많은 사례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중보건 분야의 개입 활동과 기금 조성에 있어서 극적인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재정위기가 공중보건 기금의 상상을 멈추게 함에 따라 MDGs의 15년 동안 가능한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오늘날에도 그 효과를 계속 감지할 수 있는 많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2016 GEM 보고서는 SDGs의 핵심사항인 교육을 위한 행동의 요구로 여겨져야 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거듭된 것처럼 저는 세계 결핵·에이즈·말라리아 기금의 긍정적인 교훈에 바탕을 둔 글로벌 교육 기금의 긴급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가 모든 국가 간 자료와 가구별 자료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원조달의 제약은 교육이 당면한 과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문서는 우리로 하여금 SDG 4인 모두를 위한 양질의 보편적 교육과 평생학습에서 구체화된 기회, 긴급성, 전 지구적 목표에 대응하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진심으로 핵심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제프리 삭스

유엔 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목표 특별 자문관



『2016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요약본

서론

2015년 9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라는 새로운 글로벌 발전 의제를 채택했다. 그 중심에는 교육에 관한 목표 4번(SDG 4)를 포함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있다. SDGs는 2030년까지의 발전 우선순위를 정하고 2015년에 종료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계승한다.

“ 학교 참여율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학습이 평생 추구할 것이 되며 교육제도가 지속가능발전을 완전하게 수용하지 않는 한 교육은 세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완전한 잠재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M 보고서)는 지난 ‘EFA 세계 현황 보고서(EFA Global Monitoring Report, EFA GMR)’ 시리즈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2030 의제 아래 교육의 전개 과정에 대한 평가라는 새로운 사명을 띠고 있다. 2016 GEM 보고서는 앞으로 15년 동안 계속될 연속 보고서의 첫 번째로, SDG 4 모니터링의 함의와 함께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다른 측면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학교 참여율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학습이 평생 추구할 것이 되며 교육제도가 지속가능발전을 완전하게 수용하지 않는 한 교육은 세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완전한 잠재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의 주제별 부분은 교육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전체 의제를 위한 촉매제 구실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사례, 정책 등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가난의 감소, 굶주림의 퇴치, 보건 개선, 성평등과 권한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 회복적 대응력을 갖춘 도시, 더 평등하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사회 등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교육의 유형에 대해 주목할만한 주장을 제시한다.

모니터링 부분은 정책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 등 SDG 4의 전개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과제들을 다루고 SDG 4의 7개 교육목표와 3개의 이행수단 각각을 순서대로 검토한다. 더 나아가 교육은 다른 SDGs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교육 재원조달과 교육제도를 분석한다. 앞으로 15년간의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세계 교육 모니터링 의제를 위한 기반과 잠재력 구축에 대해 국가, 지역, 국제 수준에서 검토한다.

표 1: 교육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목표 1	교육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중요하다.	목표 10	교육은 접근 기회가 평등할 경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입증할 만한 기여를 한다.
목표 2	교육은 사람들이 더 지속가능한 영농 방법을 찾고 영양분에 대해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목표 11	교육은 사람들이 좀 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며 재해 상황에서 회복적 대응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목표 3	교육은 조기 사망, 산후 건강, 질병의 확산, 건강한 생활방식과 웰빙 등 여러 건강 문제들의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목표 12	교육은 생산 유형(예: 유통 경제 등과 관련해)과 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과 폐기물 예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표 5	여성과 소녀 교육은 기초 문해를 달성하고 참여적 기술과 능력을 개선하며 삶의 기회를 증진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목표 13	교육은 특히 지역 수준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적응 및 완화에 꼭 필요하다.
목표 6	교육·훈련은 천연자원을 더 지속가능하게 사용하는 기술과 역량을 증진하고 위생을 개선할 수 있다.	목표 14	교육은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혜롭고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하다.
목표 7	특히 비형식·무형식 교육 프로그램은 더 나은 에너지 보전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목표 15	교육과 훈련은 지속가능한 생활을 뒷받침하고 특히 위협받는 환경에서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기술과 역량을 증진한다.
목표 8	경제적 활력, 기업가 정신,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기술, 교육 수준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	목표 16	사회적 학습은 참여적, 포용적, 공정한 사회 그리고 사회적 화합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목표 9	교육은 회복적 대응력을 갖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층 더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목표 17	평생학습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실천에 대한 이해와 증진 역량을 키운다.

자료: ICSU 및 ISSC(2015).



니제르 단 사아 학교에서 칠판에 기대 원기를 적고 있는 아이들.

CREDIT: Tagaza Djibo/UNESCO

지구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은 왜 중요한가

지구: 환경적 지속가능성

인간의 개인적·집단적 행동은 지구 그리고 지구가 지탱하는 여러 생명체에 큰 부담을 준다. 인간이 환경 악화, 급속한 생물다양성 상실, 기후변화 등의 원인임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활동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과 공조해 환경적으로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육은 가치와 관점을 형성하고 지속불가능한 실천을 줄이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술, 개념, 도구 등의 개발에 기여한다.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교육의 다면적인 역할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교육은 자원의 과소비 등 지속불가능한 실천에 기여하고 비교적 지속가능한 토착 지식 및 생활방식의 상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교육의 영향이 긍정적일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짜고 교육을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인간의 활동은 환경 위기로 이어진다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환경 악화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이해방식은 인구, 현대적 생활방식, 개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인구적인 설명 방식에 따르면, 지구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지구의 인구는 1950년에서 2015년 사이에 3배 늘었고, 2030년에는 10억이 증가해 85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적인 생활양식 요인설은 도시지역과 부유한 국가에서 1인당 자원 소비가 한층 더 높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생활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국가는 지난 20년간 생태발자국이 거의 2배 늘었다. 2012년에 소득 수준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속불가능한 생태발자국을 나타냈다. 개인행동 요인설은 개인이 환경문제의 원천인 동시에 재활용, 자전거 타기,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 촉진 정책을 통한 환경문제의 잠재적인 해결사로 본다.

배움은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교육은 환경적 과제를 다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 특히 여성과 소녀 교육은 인구 증가를 줄이고 출산 관련 결정과 임신 시점에 관한 여성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교육은 소득을 늘려 생활을 개선할 수 있고, 숙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와 식량체계의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교육은 배움에 대한 현대적, 전통적, 평생학습적 접근을 통해 개인적·집단적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78개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5%는 ‘생태’, 47%는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오늘날의 접근방법: 학교교육을 통한 학습

학교는 학생들이 특정 환경문제와 그 결과 그리고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행동 유형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환경에 대한 지식은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점점 통합되고 있다. 78개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5%는 ‘생태(ecology)’, 47%는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가 2003년 환경교육 심화 내용의 편성을 시작했다. 그 결과, 130만 개 학교의 학생 3억 명이 환경교육 훈련을 받았다.

그림 1:

높은 수준의 인간개발은 상대적 비용을 초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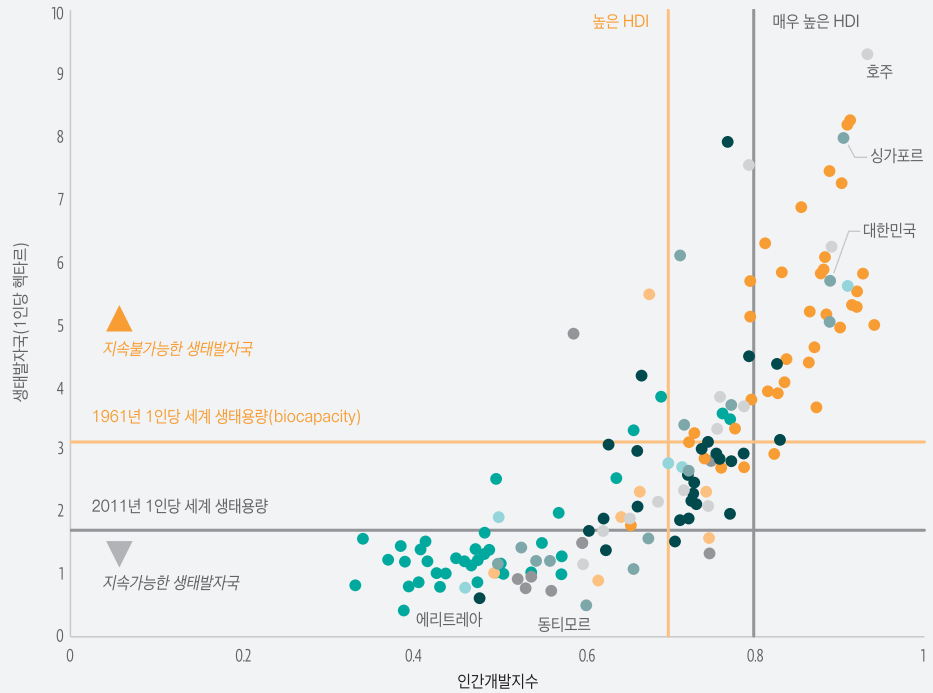
인간개발지수에 따른 국가별 총 생태발자국, 2012

현재의 인구와 이용 가능한 생산 토지 및 해양 (생태용량)을 전제로 할 때, 1인당 1.7 글로벌 헥타르 미만의 생태발자국은 지속가능하며 지구는 해당 국가의 자원 사용을 보충할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UNDP의 HDI)는 해당 국가 보건, 지식, 생활 수준에 있어서 평균적 성취도를 측정한다. HDI 값 0.8 이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인간개발을 가리킨다.

싱가포르의 높은 HDI(0.91)는 1인당 높은 생태발자국(7.97)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싱가포르인들이 유복한 생활을 하지만 자원에 대해 높은 수요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코카서스·중앙아시아
- 동아시아·동남아시아
- 유럽·북아메리카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 북아프리카·서아시아
- 태평양
- 남아시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자료: Global Footprint Network(2016) 자료에 따른 GEM 보고서 팀 분석.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쓰레기 줄이기, 에너지 사용 개선, 대중교통 이용 증대, 친환경 정책의 지지, 환경 행동주의(environmental activism) 등을 장려한다. 에스토니아와 스웨덴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이들 국가의 학생들은 2006년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그러한 내용을 배우지 않은 국가의 또래 학생들보다 환경과학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몇몇 학교들은 환경교육에 대한 '전학교적 접근(whole-school approach)'을 채택했다. 영국에서 이와 같은 학교에 대한 연구는 학교의 기풍과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으며, 학교 생태발자국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방법: 공동체를 통한 배움

전통지식, 특히 토착 지식은 오랫동안 농업, 식량생산, 보전 등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토착 사회의 수많은 전통적 토지 경영 사례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의 여러 과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방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아메리카 지속가능 정주위원회(Council of Sustainable Settlements of the Americas)가 좋은 삶(buen vivir)이라는 개념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친환경 마을 프로젝트(eco-barrio), 전통적인 지속가능마을, 지속가능성 교육 센터 등에 있어서 토착 공동체의 기여가 인정되고 있다.

지역 및 토착 지식은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 재난 조기 경보 체제,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 등에 이바지해 왔다. 미국의 알래스카 농촌 시스템 사업(Alaska Rural Systemic Initiative)은 학생들이 토착민 원로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토착 지식으로부터 배우는 학교

학습의 한 사례이다. 지역 언어로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것 역시 세대 간에 지식을 공유하는 데 기여한다.

평생학습적 접근법: 일과 일상생활을 통한 학습

형식교육을 넘어 정부기관,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지역사회 조직, 노동단체, 민간 부문 모두 개별적, 집단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후원 캠페인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원인을 지적하며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다. 2015년 에티오피아 정부와 파트너들은 태양광 제품 장려를 위한 2개년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시작했다.

종교, 문화, 사회 분야 지도자들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가치와 행동의 확산을 도울 수 있다. 그 사례로는 프란치스코 교황, 달라이 라 마, 무슬림 기후변화행동 협회(Muslim Association for Climate Change Action) 등의 환경 애드보커시가 있다.

직장은 환경 학습에 꼭 필요한 중심지이다. 여러 회사들이 생태발자국을 줄이고 직원과 대중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해 교육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008년 경제학자 정보단(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경영자의 40% 이상은 자신들의 회사가 지속가능성에 맞춰 경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노동조직들 또한 좀 더 지속가능한 직장 만들기를 증진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홍보, 캠페인, 프로젝트, 파트너십, 녹색 연대(green alliances) 등을 통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4개국 4,400만 명이 가입된 아바즈(Avaaz) 등 웹 기반 캠페인 단체는 벌 박멸 살충제 금지를 위한 2개년 캠페인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환경 인식 제고를 돕고 있다.

기후변화 대책은 통합적인 학습 접근법을 요구한다

“ 여러 예측에 따르면 교육의 진보가 정체되면 미래의 재해 관련 사망률은 10년마다 20% 증가할 것이다. ”

교육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회복적 대응력을 증진한다. 또한 완화 행동을 위한 지원과 참여를 장려한다.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방파제나 관개 시스템 등과 같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후변화 영향에 더욱 효과적이다. 특히 여성교육은 재해 사망률을 줄인다. 여러 예측에 따르면 교육의 진보가 정체되면 미래의 재해 관련 사망률은 10년마다 20% 증가할 것이다. 기후 관련 사태에서 가장 위험에 처하는 곳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적 성취가 낮고 불평등한 공동체들이다.

교육은 공동체들이 기후 관련 재해를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교육과 낮은 문해율이 사람들의 재해 경보 이해를 막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필리핀의 지역사회는 교육 관료나 그 밖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그 사회가 회복적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돕는다.

변영

오늘날의 세계는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의식 없이 생산하고 소비해선 안돼요. 세계는 모든 사감을 포용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지구를 파괴하는 일 없이 성장해야죠.



즉,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전 생애에 걸쳐 계속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수확을 거두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든 사감을 도울 수 있어요.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그러나 교육도 변해야 해요.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변화하는 노동의 세계에 적합한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져야 해요.



변명: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2030 의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세계경제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교육과 평생학습은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녹색산업의 창출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또 고등교육과 연구는 녹색 혁신을 지향하도록 한다. 교육과 평생학습은 또한 농업과 같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 모두가 의존하는 핵심 경제 부문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

경제는 지속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포용적이고 덜 불평등해야 한다. 양질의 교육은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은 인류의 복리(welfare)를 중요시하는 포용적 경제성장에 꼭 필요하다. 교육은 좋은 일자리와 적정 소득을 얻는 기회를 늘림으로써 빈곤을 줄이고,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및 그 밖의 차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된다.

산업의 녹색화는 기술 수요를 늘릴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은 녹색산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사업을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녹색산업은 이미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저소득국가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과 2040년 사이에 재생 가능 자원은 전 세계 전기발전(發電) 총 증가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중국, 인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 특히 증가할 전망이다.

녹색산업의 창출은 전문적인 고등교육과 훈련을 받은 고도의 숙련노동자에게 의존한다. 기존 산업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 수준의 숙련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며 때로는 직무교육도 필요하다. 경제가 급속한 변화를 거듭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은 어떤 기술을 가르칠지 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은 연구개발 투자의 상당한 증가를 필요로 한다. 고등교육체제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분야를 넘어선 협력적 연구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추산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에너지 연구 개발을 해마다 5배 늘려야 저탄소 시대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

교육은 농업의 변화를 도울 수 있다

전 세계 농업은 2015-2030년에 걸쳐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농업은 환경 악화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제 부문 중 하나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3분의 1의 책임이 있다. 한편, 인구성장은 식량생산과 식량공급의 더 균등한 분배 면에서 대폭적이며 지속가능한 증가를 요구한다.

“ 문해와 농업 확대 프로그램은 농민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에 꼭 필요하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미래의 농민들에게 농업의 기초 기술과 지속가능성 과제에 대한 비판적 지식을 제공하고 문해와 농업 확대 프로그램은 농민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과 관련된 농업연구는 혁신을 일으켜 지속가능성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과 공여자들은 그와 같은 연구를 중단하거나 투자를 줄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 세계 공공 농업 연구 투자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몫이 1960년 10%에서 2009년 6%로 줄었다는 점이다.

교육과 평생학습은 장기적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

초·중등교육의 증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교육적 성취의 초기 수준은 1965-2010년 사이 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간의 성장률의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양질의 교육과 고도의 숙련노동자들은 생산성 이득과 기술 변화를 촉진한다. 교육체제의 질적 차이는 경제성장에서 동아시아의 기적과 라틴아메리카의 잃어버린 10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 나라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하는데, 2014년 이 지역에서 고등교육의 총 진학률은 8%에 불과했다.

“
2020년에 이르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4천만 명
정도 부족할 것이다.”

교육이 성장을 계속 견인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노동세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술은 고도의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점원, 판매원, 기계공 등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 중간기술 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앞으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15년 총 고용의 3분의 2에 약간 못 미치는 수의 사람들이 중간 기술 업종에 종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육제도들은 시장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20년에 이르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4천만 명 정도 부족하고 더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 9천5백만 명에 이를 것이다.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팀과 프로젝트 업무, 탄탄한 문해, 의사소통과 발표 능력 등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증진하는 기술과 자격은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전할 수 있고 기초가 되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미래의 고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교육제도를 위한 과제는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적 포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교육은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교육은 성장을 이끌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며, 공정하게 분배될 경우 불평등을 줄인다. 10개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들이 조기 학업 포기를 막고 고등교육 진학을 늘려 2020 목표를 충족한다면 빈곤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수를 370만 명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훈련과 기술의 증가가 항상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로 고르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국 정부는 교육을 평등하게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 소득불평등의 확대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재분배 사회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교육은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한다

실업률은 특히 부유한 나라의 교육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낮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25-64세 성인 가운데 55%만이 취업했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의 73%,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83%가 취업했다. 이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이러한 상관관계는 청년들 사이에서 종종 약화되는데, 이는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낮고 교육제도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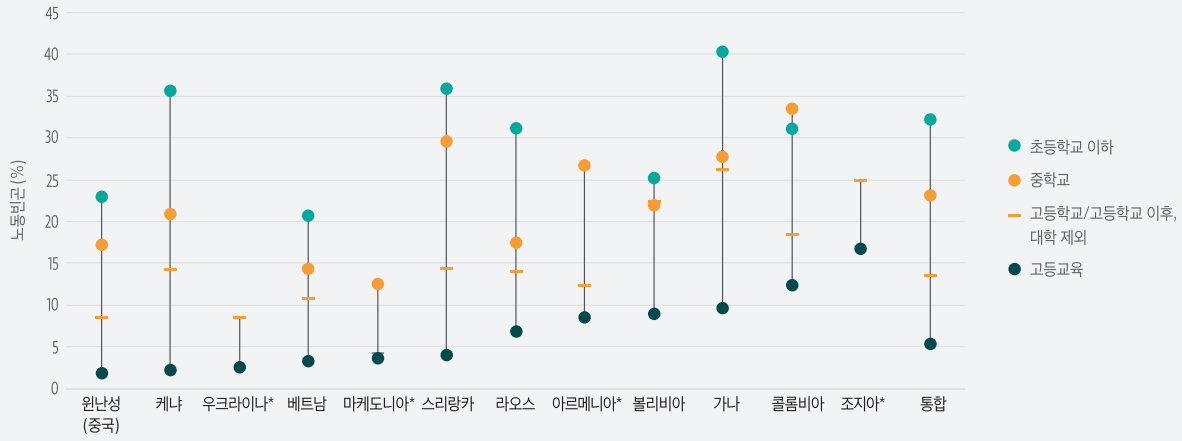
교육 불평등이 감소하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약 집단의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16 GEM 보고서를 위해 실시한 분석에서는 유리한 계층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같은 교육을 받는다면 노동 빈곤의 불평등을 39%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은 소득과 연결되어 있는데, 139개국에서 1년간 추가 학업에 따른 수익률은 9.7%이다. 수익률은 숙련노동자가 부족한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학생들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일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려면 숙련노동자의 수요를 높이는 경제정책이 교육투자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2:

교육 수준의 증가는 노동 빈곤 감소와 관련 있다

12개 중하위소득국가의 교육수준별 노동 빈곤 수준(주급 중간값의 50% 이하)



*관찰 대상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 수준은 제외.
비고: 표본은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임. 15-64세 정규직 노동자(주당 최소 30시간 노동)가 표본.
자료: 세계은행 STEP 측정 조사(2012-2013)를 토대로 한 GEM 보고서 팀 추산.

녹색성장은 고용 확대를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환경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산업들이 사라질 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학습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코코의 어느 카사바 농장에 서 있는 한 남자. 이 농장은 개량된 기술을 사용해 카사바를 재배하고 있다.

사랑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아주 다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모두 같아요.
우리 모두는 존엄하게 대우받고 싶어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건강해야 하고,
건강해지려면 자신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불행하게도 이런 교육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다른 기본적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평등 역시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여성 리더가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매일 발생해요.



그런데 여성을 교육시키면 여성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시 판단에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정치에 참여하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죠.



여성 교육은 여성 자신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개선합니다.

차별을 끝내려면 지금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 포용적인 사회발전

사회발전은 인간 복지와 평등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나 정의와 양립한다. 교육은 사회발전의 강력한 동력이자 핵심적인 측면이다. 교육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자녀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체이다. 또한 소녀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취약 인구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건강, 영양 상태, 물, 에너지원 등이 교육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것처럼, 교육은 다른 부문과 연결되어 있다. 아동의 건강은 배우는 능력을 결정하고 보건 인프라는 교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교사들은 교육 부문이 작동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궁극적으로, 다차원적인 빈곤 과제를 다루는 데에는 인간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포용적인 사회발전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포용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교육, 보건, 물, 위생, 에너지, 주택, 수송 등 주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질적인 성평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무급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들보다 2배나 더 많다. 이 여성들은 종종 비공식적 부문에서 일한다.

“ 포용적인 사회발전은 여러 취약 집단 가운데 특히 여성, 장애인, 토착민, 민족적·인종적 소수자, 난민, 이주민 등에 대한 뿌리 깊은 주변화와 차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 차별적인 기준을 바꾸고 여성과 남성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지식이 개선되어 가치와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인종적·민족적·언어적 소수자, 장애인, 목축민, 슬럼가 주민,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아동, '미등록(unregistered)' 아동과 고아 등 많은 집단들은 교육의 접근과 질적 측면에서 주변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 소득, 거주지, 민족, 성(gender) 등에 있어서의 차이는 각국의 교육 주변화 유형을 결정한다. 가난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101개 중하위소득국가의 20-24세 인구 가운데 최빈곤 계층은 가장 부유한 계층보다 수학기간이 평균 5년 정도 짧다. 도시와 농촌 인구 사이에는 그 차이가 2.6년이며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는 1.1년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종종 중첩된다. 예를 들어, 가난하고 민족적·공간적으로 주변화된 계층의 여성은 이따금 남성보다 훨씬 고된 생활을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농촌 빈곤 여성 가운데 기초적인 문해력을 갖추고 있는 이는 절반에 못 미친다. 아프가니스탄, 베냉, 차드, 에티오피아, 기니, 파키스탄, 남수단 등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이 극심한데, 최빈곤층 젊은 여성들의 수학 기간은 1년 미만이다.

교육은 사회발전의 성과를 개선한다

교육은 특히 건강과 여성의 지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사회발전의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교육은 건강, 영양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고 의료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킨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탄자니아 등에서는 가난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환자들이 유능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식사와 보건 캠페인 등을 통한 학교의 개입 활동은 건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은 출석률을 높일 수 있다. 부르키나파소 북부의 농촌에서는 학교가 매일 제공하는 점심이나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배급을 통해 1년 후 여성 취학률을 5-6배 증가했다.

학교의 개입 조치들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에서의 다양한 식용수, 위생시설, 위생 개입 활동은 건강과 경제적·성적 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학교 급식이 학습에 대한 투자이자 장기적인 식습관을 가르치고 음식 선



나이지리아에서는 학교교육을 4년 더 받으면 소녀 1명당 출산율을 1만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도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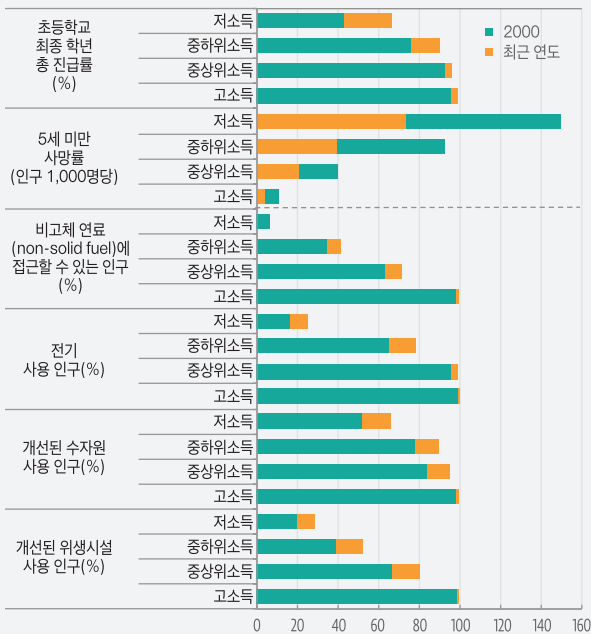
개인 사회는 소녀나 여성이 좀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때 이익을 얻는다. 교육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넓힌다. 문해 능력은 여성이 사회적·법적 권리와 복지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은 여성이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전달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다. 낮은 교육 수준은 친밀한 사람 사이에 폭력을 낳는 상당한 위험 요소이다.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어머니는 자녀를 훨씬 더 잘 양육하고 이들의 건강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어머니의 교육은 또한 세대 간 강력한 효과를 낳는데, 가족의 선호와 사회적 기준을 변화시킨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학교교육을 4년 더 받으면 소녀 1명당 출산율을 1만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어린 자녀의 어머니들을 지원하는 단기 교육은 건강과 영양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상을 특정한 비형식교육은 여성들이 출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교육은 산모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여성교육을 0년에서 1년으로 늘리면 출생자 10만 명당 산모 174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림 3: 기초교육과 보건 성과 개선 및 핵심적 기본 서비스 제공 면에서 진전이 있었다

기초 서비스 접근, 보건, 교육 성과 등의 개선, 2000년 및 최근 연도



비고: '최근 연도'이라고 할 때 비고체 연료와 전기 접근의 경우는 2012년, 초등학교 최종 학년 총 진급률은 2014년, 5세 미만 사망률과 물과 위생시설 접근은 2015년을 가리킴. 자료: UIS 데이터베이스와 세계은행(2016).

사회발전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사회발전은 교육에 긍정적으로도, 혹은 포용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건강과 영양 상태는 교육제도를 위한 토대가 된다. 건강과 영양 상태는 아동이 학교에 가서 배우며, 가족들이 아동을 지원하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 케냐에서는 기생충 구제 치료를 받은 소녀가 국가 초등학교 졸업 시험을 통과할 확률이 25% 높았다. 영유아기 생활조건은 배움의 기초가 된다. 교사가 양질의 건강 관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교사의 결근과 감원을 줄일 수 있다.

물, 위생, 에너지 등에 대한 접근은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나에서는 물을 길어오는 시간을 반으로 줄였더니 특히 시골 지역 소녀들의 출석률이 높아졌다. 페루의 시골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구의 수가 1993년 7.7%에서 2013년 70%로 늘어나면서 아동의 공부 시간이 하루 93분 늘어났다.

통합적인 사회적·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교육에서 양적 성균등(gender parity)의 진보는 질적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체계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여성교육은 증가했지만, 노동자의 고령화로 인해 교육받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

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건강 관련 행동 변화는 교육 개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는 교육을 입법의 변화나 노동 정책 등의 활동과 통합하는 좀 더 광범위한 개입 및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금, 현금 이전, 소액신용대출 등 위험과 취약성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보호 프로그램들은 빈곤의 감소부터 교육 기회의 향상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친화적인 정책과 유연한 업무환경은 여성들의 지속적인 노동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뿌리 깊은 성편견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브라질에서 프로그램 H(Program H)는 남성의 성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집단교육시간, 청년 주도 캠페인 및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개 이상의 국가에 도입되었다.



방글라데시 디나즈푸르 간호사 양성기관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아 산후 돌봄 실습 훈련을 받고 있는 2학년 조산사 후보생 셀리나 약테르.

평화

분쟁은 교육을 파괴합니다. 학교, 학생, 교사들이 공격을 받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분쟁은 교육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요.



학교는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난 어딘가 가족들을 위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총을 드는 대신 투표를 하고 평화롭게 시위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읽지 못하고 법적 권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법 체제를 이용할 수 있겠어요?



공식 평화협정문에서 평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교육은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평화: 정치 참여, 평화, 정의에 대한 접근

이따른 폭력과 무장충돌은 개인의 안전과 복리를 훼손한다. 폭력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대의제도와 원활하게 작동하는 사법체계가 필요하다. 교육은 정치적 참여, 포용, 애드보커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교육이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 교육은 평화구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평화구축을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좋지 않은 결과를 다룰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이끌어 가는 교육 활동은 주변화된 주민들이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교육과 문해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높인다

교육은 주요 정치 지도자와 정치 체제의 작동에 대한 지식을 높인다. 개개인은 투표 등록을 하고 현안을 이해하고, 선거 결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정보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케냐 서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주변화된 민족 출신 여성에 초점을 맞춘 장학금 프로그램이 중등학교 참여와 정치적 지식 수준을 높였다. 파키스탄에서는 2008년 선거에 앞서 진행된 유권자 의식 캠페인이 여성 투표율을 12% 높였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07년 선거 전의 폭력반대 캠페인이 유권자들에게 대한 협박 위협을 줄여 투표율이 10% 상승했다.

더 나은 교육은 사람들이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화된 집단의 참여율을 높인다. 논쟁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지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학습 환경과 체계적인 시민교육(civics education)에 노출된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35개국 대상 연구에 따르면, 교실 토론의 개방성은 정치 참여 의지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에서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교실 분위기가 학생들이 시민적·정치적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나은 교육과 여성의 의사결정 기구 참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치와 공직에서의 여성 참여 비중 확대는 긍정적인 여성 롤 모델(role model)을 제공하고, 여성들의 교육 열망을 높임으로써 교육의 성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인도의 가장 큰 16개 주에서 여성의 지역 정치 참여율이 10% 증가할 경우 초등학교 이수율이 약 6% 증가하며, 특히 소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문해 수준이 1870년에서 2000년 사이 민주주의로의 체제 이행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시민들이 시위, 보이콧, 파업, 집회, 정치적 시위, 사회적 비협조, 저항 등 비폭력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관심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 106개 국가에서는 지난 55년 동안 교육을 많이 받은 민족 집단들이 비폭력 시위를 벌이는 경향이 높았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광범위하고 평등한 접근은 민주주의적 실천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문해 수준이 1870년에서 2000년 사이 민주주의로의 체제 이행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

교육과 분쟁: 복합적인 관계

양질의 교육 부족에서 비롯된 가난, 실업, 무망감(hopelessness) 등은 무장 군사집단을 결성하는 요인이 된다. 시에라리온에서는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반란 단체에 들어갈 확률이 적어도 9배나 높았다. 교육 불평등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50년에 걸쳐 100개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격차가 큰 나라들이 분쟁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좀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노동시장은 정체되어 있을 때 사회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50년에 걸쳐 100개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격차가 큰 나라들이 분쟁에 빠지기 쉽다.

편견, 비관용, 역사왜곡을 조장하는 학교는 폭력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많은 나라의 교육과정과 학습자료들은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킨다. 르완다에서 1962-1994년 사이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내용이 후투족(Hutu)과 투치족(Tutsi)을 분리하고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여 배타적인 집단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교육에서 언어 또한 보다 폭넓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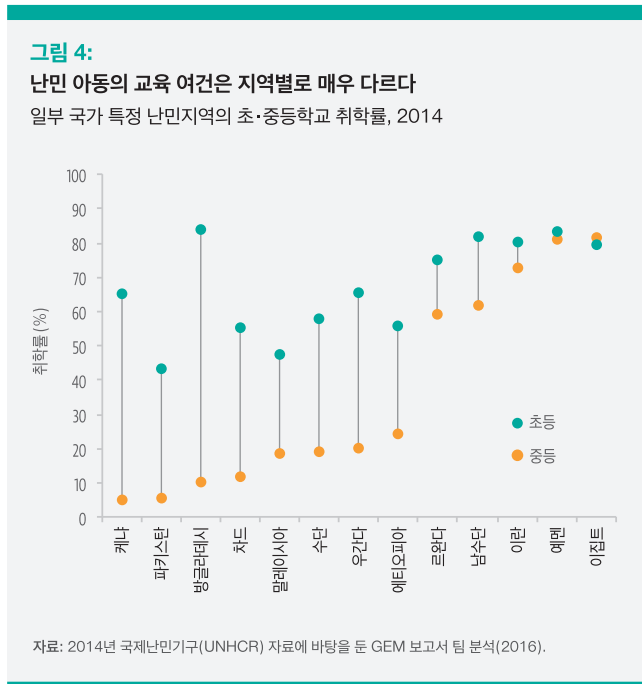


무장총들은 교육의 진보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분쟁국가에서는 2,150만 초등학령 아동(전체의 35%)과 1,500만 정기중등학령 청소년(25%)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시리아에서는 2013년에 50만 이상의 아동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다. 학교는 종종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교사들은 위험에 처한다. 콜롬비아에서는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교사 140명이 살해되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무장 단체에 강제 가입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4:

난민 아동의 교육 여건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다

일부 국가 특정 난민지역의 초·중등학교 취학률, 2014



자료: 2014년 국제난민기구(UNHCR) 자료에 바탕을 둔 GEM 보고서 팀 분석(2016).

난민은 교육제도의 큰 도전과제이다. 난민 아동과 청소년은 비난민 또래들보다 학교에 다니지 못할 가능성이 5배나 높다. 어떤 난민 환경에서는 학생/교사 비율이 70대 1이고, 많은 교사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교육은 민족집단이나 종교집단 간의 차이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학교 분리를 통해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학교에서는 차별적 태도를 키울 수 있다. 1996년 종전 이후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는 학교가 민족과 언어에 따라 분리되어 있다. 교육과정 내용은 분쟁 이후의 집단 간 관계를 돕기도 하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교육과정 개혁의 성공은 동기 부여가 잘 되어 있고, 참여적이며, 훈련받은 교사의 활용 가능성에 달려 있다.

체계적인 형식·비형식 평화교육은 학생들의 공격성, 괴롭힘, 폭력성을 줄일 수 있다. 교육은 국제적인 평화구축 의제에 통합될 필요가 있지만 안보 문제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1989년에서 2005년 사이에 체결되어 공개된 37개 평화협정문 전문 가운데 11개는 교육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육은 사법체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다

평화로운 사회를 지속하는 데는 사법 제도의 원활한 작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복잡한 사법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2011년 구 유고의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법원 소비자 조사 결과(court survey user)에 따르면, 초등교육 이수자의 오직 32%만이 사법제도와 그 개혁에 대해 알거나 부분적으로 이해한 반면, 고등교육 이수자 가운데 그 비중은 77%였다. 지역 사회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주변화된 사람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울 수 있다.

법관 및 법 집행관리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불충분한 훈련과 역량 강화는 정의의 위축과 지연,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증거 수집, 및 집행의 부재와 남용을 낳을 수 있다. 아이티에서는 국립 경찰이 7개월간의 유엔 직원훈련 프로그램(UN recruit training programme)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했다.



보르노 주 마이두구리의 예르와 초등학교에서 2010년과 2013년에 보코 하람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교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 1915년 설립된 이 학교는 나이지리아 동북지방 최초의 초등학교였다.

장소

도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변하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가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도시 서비스에 부담이 되지요.



교육은 이런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도시를 살기에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도시를 더 환경친화적인
곳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올바른 교육은 차별과 범죄를 줄이고
더 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과 도시 계획자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경청한다면 이를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장소: 도시와 인간의 정주

도시화는 오늘날의 인구통계적 추세를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 혹은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2050년까지 가장 두드러진 도시 인구성장은 저소득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다. GEM 보고서는 도시와 도시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이 도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도시 변화의 규모와 속도는 좋은 거버넌스와 유연성, 혁신 등을 필요로 한다. 교육이 도시계획에 통합되어 도시 인구가 변화함에 따라 모두의 교육적 필요와 권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은 도시 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논의에서 거의 빠져 있다. 교육이 도시의 미래에 관한 논의에서 일정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해관계자들과 도시 지도자들의 더 강력한 애드보커시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도시는 교육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 성장의 절반은 자연적인 인구성장에, 나머지 반은 농촌 지역에서의 이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성장은 기초 교육, 평생학습, 기술의 개발, 교사 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교육을 통해 슬럼 주민, 이주민, 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화합 (social cohesion)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저소득국가에서는 도시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도심이나 도시 외곽의 슬럼가나 판잣집에 산다. 슬럼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빈약한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우간다의 12개 도시와 마을의 130개 슬럼가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교육을 받지만 접근성이 높은 공립학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2014년 말, 난민 10명 중 6명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었다. 현재 전 세계 난민의 절반 이상은 18세 이하이다.

일 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시로 온 이주민들은 차별, 언어 장벽, 실업, 비공식 경제에서의 착취 등에 직면한다.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강제 이주해 온 아동이나 청년들을 받아들이는 도시의 교육체제는 특히 전 세계 난민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장기적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말, 난민 10명 중 6명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었다. 현재 전 세계 난민의 절반 이상은 18세 이하이다. 터키에서는 난민 캠프에 머무는 시리아 아동의 85%가 학교에 다니는데 비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난민 아동의 30%가 학교에 간다.

”

특히 공교육 관련 논의에서 주요 도시와 도시 외곽 지역에서 사립학교의 지배력은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된다. 도시 외곽 지역에서 사립학교의 성장은 대부분 비형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데, 종종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의 2010-11년 사립학교 조사는 유치원생의 85%, 초등학교생의 60%가 사립학교에 진학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은 도시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친다

양질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높은 진학률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도시는 고등교육, 기술, 재능, 지식, 혁신의 글로벌 허브로 자처함으로써 인적 자본과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다. 중국의 대도시 상하이의 경우 여러 인재를 유치하고 10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10년 만에 대학교육을 받은 노동자 비율이 2배 늘어났다. 스탠포드대학 동문들이 설립한 1만 8천 개 회사들은 캘리포니아 도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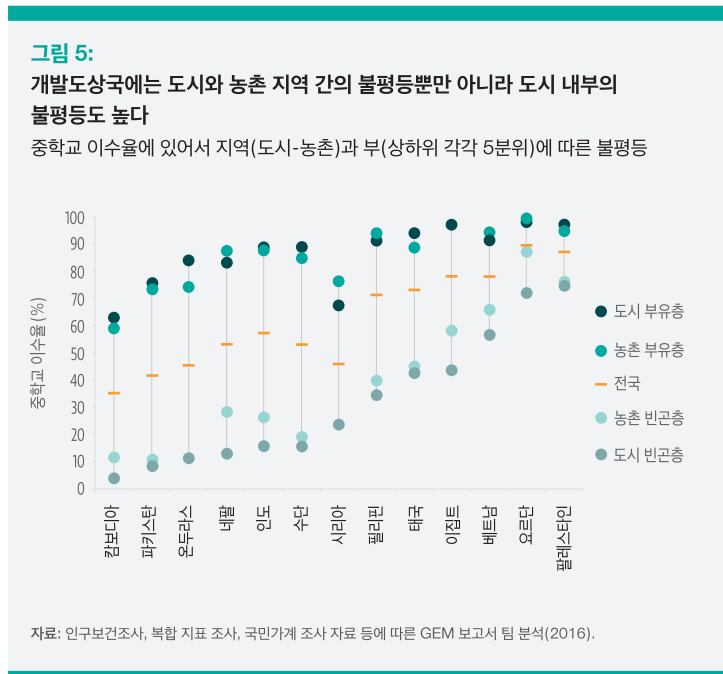
비공식 노동은 저소득국가, 특히 도시에서 고용과 소득의 주요 원천이자 경제 위기 중엔 고소득국가 경제의 중요한 임시 대응책이다. 도시의 번영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도시 경제에서 비공식 노동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은 또한 특히 범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의무 교육의 연장이 범죄와 폭력 감소의 주요 요인이었다. 미국에서는 조기 아동교육 투자가 성인 범죄를 줄이는 데 장기적인 효과를 보였다.

교육은 환경적 과제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교육활동은 대중들의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새로운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대한 집중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이행 지연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등 자전거 사용을 추진하는 도시가 있는 국가에서 교육은 아동들이 일찍부터 심화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접근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은 도시의 불평등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교육이 사회적 계층화(stratification)를 심화하지 않도록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과 사회적 포용성(inclusion) 개선을 위한 활동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차이 이상은 아니더라도, 도시 내에서는 상당한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 도시 지역에서 사는 데 따른 잠재적인 편익은 불평등 대책의 부재로 인해 훼손될 수 있다. 우수 교사의 불평등한 분포 등 차별 정책이나 관행 역시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칠레의 대도시 지역인 콘셉시온(Concepción)에는 양질의 학교 분포 면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었다.

종종 취약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생기는 사립학교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학부모들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차터학교(charter school), 그 밖의 비국가 기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선택 제도는 종종 인구통계학적 계층화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기도 한다.

교육 불평등은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영속화될 수 있다. 교사들은 이주민이나 소수자 자녀를 대상으로 통상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

주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상하이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배경변인은 통제해도, 이주 학생들이 언어 과목에서 해당 학년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학업 성과를 거둔다고 보고하는 일이 많다. 또한 취약집단을 위한 학교가 폭력적이라면 교육은 사회적 배제를 영속화할 수밖에 없다.

민족, 사회계급 혹은 인종에 의한 분리는 미국, 대부분의 유럽과 남아프리카처럼 역사적으로 복잡한 인종 관계를 갖는 국가의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교육 양상이다. 교육에 따른 분리(education-based segregation)는 최첨단, 지식 기반 대도시 지역에서 훨씬 심각하다. 미국 30개 대도시의 90%에서는 소득 상·하위 가구 사이의 분리가 증가했다. 유럽 13개 주요 도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지식 집약적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함에 따라 사회경제적·공간적 분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과 평생학습은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변모를 가져온다

교육은 통합적 노력의 일부가 된다면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베를린에서는 마을 관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여러 활동, 교육, 취업 기회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통합된 도시’를 만들었다.

“ 인도는 도시 주민 10만 명당 계획자가 1명인 반면, 이에 비해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5천 명당 1명의 계획자가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자들이 여러 분야와 부문에 걸쳐 효과적으로 협력해 더 지속가능한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학제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학교와 프로그램들이 제한적이다. 인도는 도시 주민 10만 명당 계획자가 1명인 반면, 이에 비해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5천 명당 1명의 계획자가 있다.

” 교육 주도의 참여 접근법은 취약집단의 요구를 인식하면서 도시계획과 의사결정을 개선한다. 국제 판자촌/빈민가 거주민 연맹(Shack/Slum Dwellers International)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평등을 기록하고 지방 정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돕는다. 이 네트워크는 아프리카 계획학교 협회(Association of African Planning Schools)와 협력해 특히 비공식 정주(informal settlements) 관련 도시계획의 타당성을 높이는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 정보를 갖고 있는 도시의 지도자들은 도시를 변모시키기 위해 교육과 평생학습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콜롬비아 메데인(Medellín)에서는 시장이 교육 주도의 사회 변화 전략을 통해 이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도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했다. 도시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전략을 강조하는 것은 도시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브라질의 시골 지역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결과 형성된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지역(favelas).

CREDIT: Anna Spysz/GEM Report

파트너십

좋아요. 그런데 교육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필요한 경비를 어디서 구하죠?



먼저, 정부가 국내에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거둬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은 사각들이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해요. 필요한 돈과 가지고 있는
돈 사이에 적어도 390억 달러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국제 원조가 늘어야
합니다. 2010년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에 비해 액수가 12억 달러 정도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조액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나라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공여자들과 정치인들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힘을 모아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비용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파트너십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SDG 4와 다른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여건 조성

2030 의제는 오늘날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과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통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SDG 17은 SDGs 달성 수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활발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요구한다. SDG 17의 세부목표들은 적절한 자원조달을 보장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증진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포함한 여러 협력 방안을 강조한다.

재원조달

GEM 보고서팀은 저소득국가와 중하위소득국가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취학전 교육에서 고등학교 수준까지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2030년까지 연간 총 경비가 1490억 USD에서 3400억 USD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2015년 7월의 오슬로 발전을 위한 교육 정상회의(Oslo Summit on Education for Development)에서 출범한 국제 글로벌 교육 재원조달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the Financing of Global Education Opportunities)는 국내 기금 동원과 기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해 교육 관련 신탁약(New Compact)을 요구한다.

‘교육 2030 실행계획(Education 2030 Framework for Action)’은 국내총생산(GDP)의 4~6%, 공공지출의 15~20%를 국내 교육 재원조달의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내 재원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모든 저소득국가 가운데 약 절반은 세율이 GDP의 15%인데 비해, 신흥경제국은 18%, 선진국은 26%이다. 가난한 국가에서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와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납세자의 행동을 개선하고 준법성을 높일 수 있다. 123개국을 대상으로 1996년에서 201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낮은 문해율은 세수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 납세 회피자들은 종종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이기는 하지만, 교육은 조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9개 국가가 교육부처와 조세당국 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교육과정에 조세교육을 포함한 바 있다.

“ 저소득국가는 역외투자 등을 통한 다국적 탈세로 인해 연간 1천억 USD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조세 회피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전 지구 사회의 책임 중 하나이다. 최근의 추산에 따르면, 저소득국가는 역외투자 등을 통한 다국적 탈세로 인해 연간 1천억 USD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저소득국가가 잃어버린 조세수입을 되찾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조약, 기업의 해로운 의사결정 등에 관한 국내의 공조가 필요하다.

” 많은 나라들은 교육의 혜택을 염두에 두고 지출액을 다시 책정할 수 있다. 교육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두 가지 방법은 화석 연료 보조금을 없애는 것과 교육 기금을 책정하는 것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료 보조금 개혁의 결과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교육 부문 공공지출이 60% 이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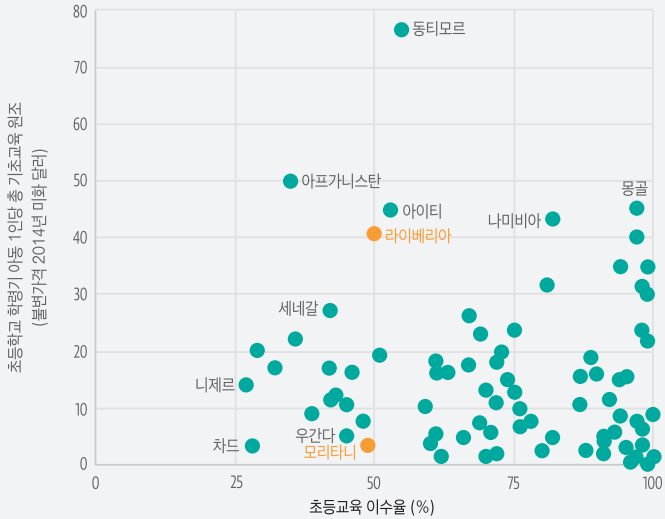
그러나 국내 수입을 동원한다고 해도 연간 390억 USD의 자원 격차는 여전히 남는다. 국제 원조는 앞으로도 많은 저소득국가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 원조 규모는 6억 USD 가량 줄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해 보인다. 하나는 다자간 메커니즘을 통해 더 많은 기금을 교육에 배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더 많은 원조를 활용해 국가 당국의 역량을 신장하고 이로써 국내 재원을 늘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움이 절실한 국가나 고급 등 원조 대상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다. 아직 개선의 여지는 많다. 교육 부문 초기 투자자가 상당한 이득을 가져오면서도 불구하고 2014년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직접원조는 1억 6백만 USD에 불과했는데, 고등교육 원조액의 3% 미만이었다.

정책 일관성

부문 중심적인 접근법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호의존적인 과제를 극복하는 데 불충분하다. 광범위한 SDG 의제는 다부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교육에서 부문 간 개입으로는 학교 급식, 학교 보건, 영유아 발달, 기술 및 생활 훈련 등에 있어서 통합적인 사업이 있다.

그림 6:

기초 교육에 대한 원조가 수혜국이 원하는 바와 연관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학령 아동 1인당 기초교육 총 원조(2014) 및 초등교육 이수율
 (2008-2014)



자료: OECD 통계정보입력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 2016)에 따른 GEM 보고서 팀 분석 및 세계 교육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orld Inequality Database on Education).

초등교육을 마쳤으나 라이베리아가 학령기 아동 당 기초교육 원조액을 10배 더 받는다.

파트너십

지역 및 중앙정부 당국, 시민사회, 학계, 과학공동체, 민간부문, 전 세계 다층적 이해관계자 조직들은 SDGs와 같은 글로벌 의제의 이행을 도울 수 있는 파트너들이다. 시민사회, 민간부문, 다층적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은 중앙정부가 이끌어갈 것으로 여겨지는 새로운 의제의 자원조달, 이행, 상호책임성 보장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 활동의 증가는 EFA 의제의 주요 성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더 생산적으로 설계하는 데는 여러 도전들이 있다. 우선, 공여 기금에 많이 의존하는 조직들이 어떻게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또 다른 도전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시민사회 주체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이 SDGs에 기여할 수 있는 역동성과 자금은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민간 개입의 확대를 자원조달, 유연성, 혁신, 학습결과의 개선으로 보지만, 회의론자들은 학교교육에서 불평등과 불공정한 시장 영향력을 넓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본다.

“
 조정과 자원조달에
 관여하는 기관·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정과 자원조달에 관여하는 기관·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 세계 교육 조정 메커니즘에는 SDG-교육 2030 운영위원회(SDG-Education 2030 Steering Committee), 글로벌 교육회의, 지역회의, 여러 NGO의 연합체 등이 있다. SDG-교육 2030 운영위원회는 여러 국가를 지원하고 진행 상황을 평가하며 파트너 활동의 조정을 장려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기대된다. 교육 부문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인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은 세계 결핵·에이즈·말라리아 기금,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보건 부문의 파트너십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새로운 ‘교육은 더 기다릴 수 없다(Education Cannot Wait)’ 기금은 분쟁, 자연재해, 질병 등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가 수준에서 다부문 계획을 개선 노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치적 의지, 제도적 지원, 적정 역량과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 지원 차원에서 교육, 보건, 물, 위생 시설 등의 지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 감면 기금이 활용되었다. 콜롬비아의 국가 발전 계획은 교육, 평화, 평등을 대통령의 역점사항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교육을 가장 잘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각자의 부문에서 정책형성과 이행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조정과 협력이 방해가 되는 경향이 있다. 잘 짜인 국가 계획은 우수한 교육 자원조달 계획이나 분권화된 기획 및 자원조달 시스템과 연계되고, 원활한 부문 간 통합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에서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공여기관들은 SDGs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과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한다. 이들은 발전에 대한 접근방법 면에서 일관된 전망이 부족할 수 있고 다부문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원조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 라이베리아와 모리타니아에서는 아동의 절반만이

추정: 교육의 확대는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의 성과에 영향을 줄 것인가

2030년 이후 글로벌 교육 성취 추정

2016 GEM 보고서는 전 세계의 대표적인 데이터와 정교한 방법론을 사용해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보편적 중등교육 이수의 성취 전망을 보여준다. 그 메시지는 냉정하다. 전 세계 교육 과제를 달성하는 데는 5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오늘날의 추세대로라면 초등교육 보편화는 2042년에, 중학교 교육 보편화는 2059년에,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보편화는 2084년에 달성될 것이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가장 부유한 나라들보다 100년 늦게 초등교육 보편화를 성취할 것이다. 주된 결론은 저소득국가와 중간 소득국가 모두 세부목표 4.1의 요소를 달성하려면 SDG 이행 방안은 과거의 추세로부터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발전 성과에 대한 영향 추정

추정에 따르면, SDG 교육 목표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작은 성과도 다음 세대에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GEM 보고서는 교육의 확대가 다른 SDGs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교육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돕고(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성인 기대수명을 높임으로써), 개인과 국가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며(국민 경제의 총 성장을 높이고 절대적인 극빈을 줄임으로써) 재해 취약성을 줄이는 것을 돕는지 분석한다.

2030년까지 고등학교 교육 보편화를 달성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2030년까지 1,000명당 68명에서 54명으로, 2050년까지 출생률은 1,000명당 51명에서 38명으로 낮추게 될 것이다. 아동의 건강은 지역사회 수준의 노력, 보건활동과 행동의 확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 사망률은 이러한 추세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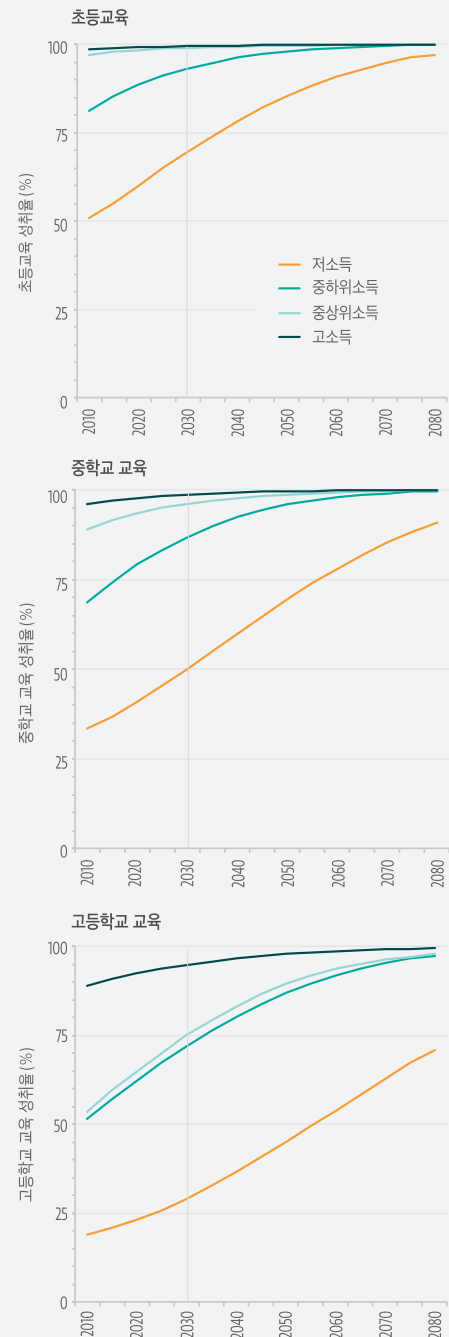
교육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과 도입을 가속화함으로써 1인당 소득을 늘릴 수 있다. 저소득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수율을 보편화하면 2050년까지 1인당 소득이 75% 상승할 것이다. SDG 세부목표 4.1을 달성하는 것이 2030년까지 극빈 상황을 없애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빈곤 해소를 10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재해 관련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데, 교육받은 사람들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을 더 잘 인식하고 준비도가 높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평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해 발생 빈도가 여전할 경우, 2030년까지 중등교육 보편화를 달성한다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25

그림 7:

과거 추세로 봐서 중하위소득국가는 2030년까지 보편적인 기초 교육 이수조차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교급별, 국가 소득 집단별 15-19세 성취율 추계, 2010-2080



자료: Barakat(2016).

만 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2040-2050년까지 재해 관련 사망자 수는 1-2만 명 정도 감소할 것이다. 중등교육 보편화는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취약한 집단이 해안에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재해 관련 사망률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교육과 지속가능성: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하는 것

앞 절에서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사이의 많은 관련성을 보여준 바 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율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일터에서도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뜻이다. 교육을 잘 받은 남녀는 환경적으로 인식이 높고 기후변화의 충격에 회복적 대응력이 더 높다. 또한, 더 생산적이고 소득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으로 참여적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소녀와 여성들을 교육하는 이익은 많고 세대 간에 전해진다.

전 세계적 차원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교육의 효과를 바꾼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부를 창출했지만 많은 사람을 뒤처지게 하고 그들이 삶과 생활을 경제적 혼란과 지속적인 빈곤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경제 불황은

“

교육이 변혁적으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현상 유지의 교육’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

정치적 불안과 갈등을 심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난하게 만든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혼란은 젊은이들이 적어도 12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광범위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들을 훼손한다.

교육이 변혁적으로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현상 유지의 교육’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학습은 관계적, 통합적, 공감적, 예측적, 체제적인 사고를 배양해야 한다. 학교는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본보기 공간, 즉 SDGs 달성의 기반이 되는 포용적, 민주적, 건강한, 탄소중립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아래 정책 권고는 교육제도가 지속가능발전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 모든 부문과 파트너에 걸친 협력과 시너지 지원. 시스템적인 문제는 복합적인 주체와 다양한 관점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전 부문에 걸쳐 부서, 교육 전문가, 시민사회의 모든 파트너들을 참여시키는 더 강력한 노력들을 필요로 한다.
- 정부는 전 부문적인 문제로 다루기 위한 노력에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및 학습을 핵심적인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은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량 강화 도구이다. 많은 SDG 목표들은 교육제도가 제공하는 특별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 교육은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으나 교육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주변화된 집단의 양질의 초·중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하면 좋은 수입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낮출 것이다. 노동시장 규제와 기술의 변화는 특히 비형식 부문에서 안정되지 않은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 교육제도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초·중등교육 이수율의 보편화, 2) 자격을 갖고 지식이 있으며 동기가 뚜렷한 교사의 수 증가, 3) 주변화된 인구에 양질의 교육 제공, 4) 기후변화와 장기투쟁 가능성의 충격에 대한 대비.

불평등 개선

- 특히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초·중등교육 보편화는 여성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인구성장을 줄이고 세대를 넘어 사회규준과 실천을 변모시키며 지구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 소수자, 난민, 국내에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은 적절한 교수 언어를 우선시하고 편견 없는 교육과정과 학습 자료의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해당 언어에 능통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확보하는 것이 소수 민족집단과 이주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에 중요하다.
- 도시계획은 교육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고 농촌지역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기초 서비스 가운데 슬럼 주민들을 위한 교육 계획은 중요하다. 공공 편의시설과 양질의 교사는 평등하게 배정되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폭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지역과 농촌 학교의 통합은 신중한 계획과 공동체의 참여를 요구한다.

교육에 대한 초점의 변화

- 기술정책을 개발할 때 교육제도는 중장기적 필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함의를 고려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녹색기술을 가르치고 노동자들이 기술 훈련을 다시 받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중·고등교육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이나 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교수의 타당성과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 시민, 평화, 지속가능성 교육 프로그램들은 SDG 진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일 수 있다.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이것들은 더 평등한 사법체제를 보장하고 사법과 법의 집행역량을 키우고 폭력이 줄어드는 좀 더 건설적인 사회를 촉진하며 문화, 경제,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 미래 세대의 운명을 향상시킬 행동들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의 과제

세부 주제 10개가 있는 SDG 4는 향후 15년에 대해 앞선 글로벌 교육 협약보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GEM 보고서는 2030 의제에서 교육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SDG 4의 모든 목표(이 중 몇몇은 짜임새가 그다지 좋지 않다)를 분석하고, 개별적인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적인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타당하고 믿을 수 있으며 비교가능한 측정 수단을 개발하는 노력을 검토한다.

GEM 보고서는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각국과 조직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묻는다. 이 보고서는 지표들을 측정하는 제도적·정치적·기술적 맥락을 살펴본다.

“

GEM 보고서는 세계가 교육과 평생학습 면에서 진보하는지, 또 어떻게 진보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

보고서의 역할

GEM 보고서는 세계가 교육과 평생학습 면에서 진보하는지, 또 어떻게 진보하는지를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그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030 의제의 범위 확장은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한다.

여러 모니터링 지표들이 만들어졌지만(박스 1) 대부분의 지표들을 측정하는 방법론은 여전히 개발 중에 있다. 많은 지표들은 각 세부목표의 개념들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세부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대안적인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시기에 GEM 보고서는 제시된 지표들을 활용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묻고, 자료의 질을 검토하며, 증거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개선을 주장함으로써 세계의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것이다.

박스 1

SDG 4 교육 부문 세부목표와 글로벌/주제별 지표(안)

목표 4.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세부목표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등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1. (a) 초등학교 2-3학년 (b) 초등학교 말 (c) 중학교 말에 ① 읽기와 ② 수학 분야에서 최소 숙달 수준을 달성한 아동/청소년의 성비
[글로벌 성과지표 4.1.1]
2. ① 초등학교 기간 ② 초등학교 말 ③ 중학교 말에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학습평가 실시
3. 최종학년 총 진급률(초등학교, 중학교)
4. 이수율(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 학교 밖 학생 비율(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 해당 학년의 과령(over-age) 아동 비율(초등학교, 중학교)
7. 법정 ① 무상 ② 의무 초·중등교육 연한

세부목표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이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8. 보건, 학습, 심리적 건강 발달 정도가 정상인 5세 미만 아동의 성비 [글로벌 성과지표 4.2.1]
9. 긍정적·고무적인 가정 학습 환경을 경험한 5세 미만 아동 비율
10. (정규 초등교육 입학 1년전) 조직화된 학습 참여 성비 [글로벌 성과지표 4.2.2]
11. 취학 전 교육 총 취학률
12. 법정 ① 무상 ② 의무 취학 전 교육 연한

세부목표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비용의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3. 고등교육 총 취학률
14.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율(15-24세)
15. 최근 12개월 내 형식·비형식 교육훈련에 참여한 청소년/성인의 성비 [글로벌 성과지표 4.3.1]

세부목표 4.4. 2030년까지 전문·직업기술 등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하고 적합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

- 16.1. 디지털 문해력의 최소 수준을 성취한 청년 및 성인 비율
- 16.2. 기술 유형별 ICT 기능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비율 [글로벌 성과지표 4.4.1]
17. 연령집단, 경제활동 상황, 교육 수준,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청년/성인 교육 성취율

세부목표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분화할 수 있는 이 목록의 모든 지표 대상 형평성 지수(여성/남성, 농촌/도시, 소득 상위/하위 5분위 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장애 형태, 토착민, 분쟁 영향 여부 등) [글로벌 성과지표 4.5.1]

박스 1

18. 자신이 사용하는 제1언어 또는 모어가 수업 언어로 사용되는 초등학생 비율
19. 명시적인 공식 정책이 취약 인구에 교육 재원을 재배정하는 정도
20. 교육 수준 및 자원별 학생 1인당 교육 지출
21. 저소득국가 교육 총 원조 비율

세부목표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22. 기능적 (a) 문해력과 (b) 수해력이 적어도 일정 수준을 달성한 연령 집단별 성비 [글로벌 성과지표 4.6.1]
23. 청소년/성인 문해율
24. 청소년/성인의 문해 프로그램 참가율

세부목표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25. 양성평등과 인권 등 ① 세계시민교육과 ② 지속가능발전교육의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에서 주류화 정도 [글로벌 성과지표 4.7.1]
26. 세계시민성 및 지속가능성 관련 문제를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 학생의 연령별(혹은 교육수준별) 비율
27. 환경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숙달된 지식을 가진 15세 학생 비율
28. 생활기술 중심의 HIV 및 성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29. (UNGA 결의 59/113에 따라) 자국에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정도

세부목표 4.a. 아동, 장애인, 성차를 고려한 교육시설을 건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 30-32. ① 전기 ② 교육 목적의 인터넷 ③ 교육 목적의 컴퓨터 ④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⑤ 기초 식수 ⑥ 남녀 구분 기초 위생 시설 ⑦ (물, 위생 시설, 위생 관념 등의 지표 정의에 따른) 기초 손 씻기 시설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글로벌 성과지표 4.a.1]
33. 폭력, 체벌, 괴롭힘, 성차별, 성적 학대 등을 경험한 학생 비율
34. 학생, 직원, 기관 등에 대한 폭력 횡수

세부목표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및 공학 분야를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35. 수혜국별 고등교육 장학금 수
36. 연구 부문 및 유형별 장학금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유입량 [글로벌 성과지표 4.b.1]

세부목표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통해 양성된 교사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교사 공급을 실질적으로 증대한다.

37. 교육 수준 및 기관별 국가표준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38. 교육 수준별 학생/자격을 갖춘 교사 비율
39. ① 취학 전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해당국가에서 관련 수준의 교수에 필요한 최소한 조직화되고 인정된 예비교사 연수 및 직무연수(예: 교육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글로벌 성과지표 4.c.1]
40. 교육 수준별 학생/훈련된 교사 비율
41. 동등한 교육수준을 요하는 기타 직업과의 상대적 평균 교사 월급
42. 교육 수준별 교원 유치율
43. 연수 유형에 따른 최근 12개월 동안 직무 연수를 받은 교사 비율

자료: <교육 2030 인천선언과 실행계획: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향해> UNESCO(2016).



세부목표 4.1

초·중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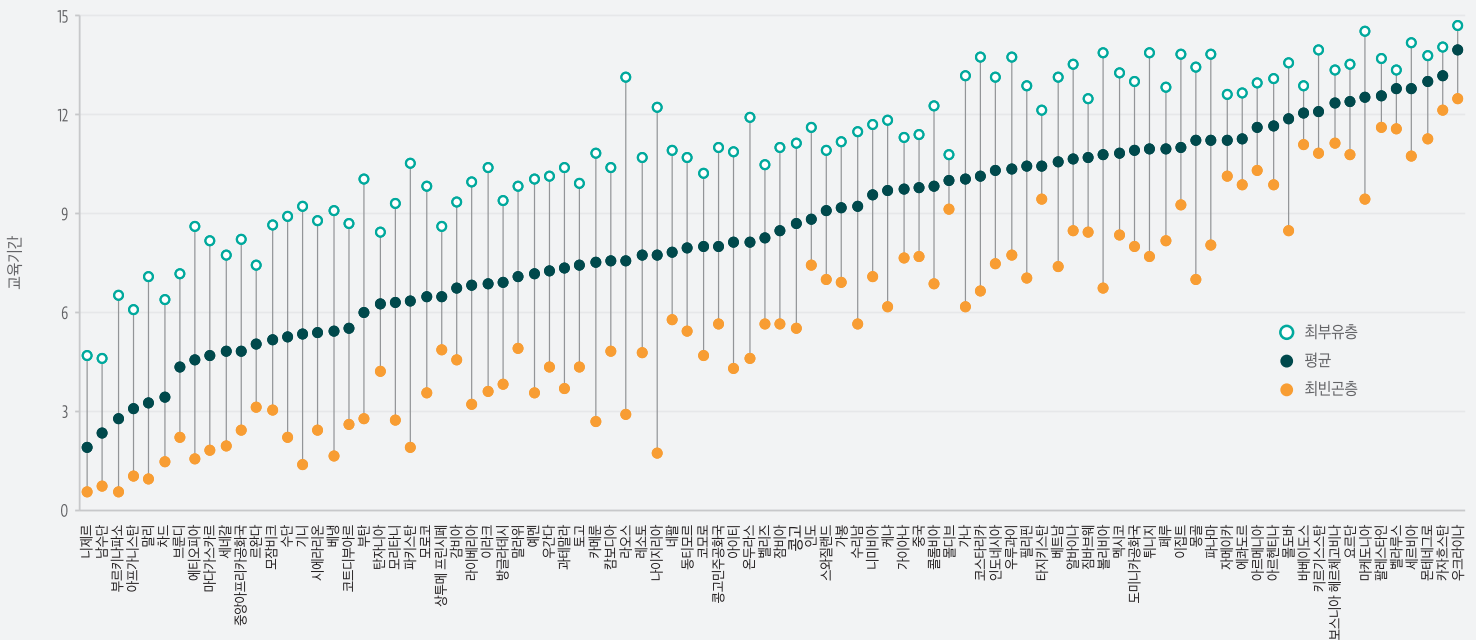
세부목표 4.1은 보편적인 초·중등교육 이수를 타당하고 효과적인 학습에 이르는 길로 생각한다. 이 세부목표를 향한 전개 과정은 SDGs를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 노력의 핵심적인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이 세부목표에 대한 비판자들은 보편적인 고등학교 이수를 향한 도정은 적어도 9년간의 모두를 위한 기초교육이라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접근, 참여, 이수

이 새로운 의제에서는 교육의 접근성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2030년까지 현재 집단을 위한 12년간의 교육 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2천5백만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소득국가 최빈 가정 아동의 거의 30%는 여태 단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세부목표 4.1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교육 참여에 대해 다룬다. 2014년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의 91%, 중학교 학령기의 84%, 고등학교 학령기의 63%가 학교에 다녔다. 이러한 추산은 초등학교 학령기 6,100만 명, 중학교 학령기 6,000만 명, 고등학교 학령기 1억 4,200만 명 등 모두 2억 6,30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 8:
90개 중하위소득국가 가운데 최빈층 청년들이 적어도 12년 수학하는 곳은 2개국뿐이다
부와 국가별 20-24세의 수학기간, 2008년, 2014년



자료: 가계 조사를 활용한 GEM 보고서 팀 분석.

이 새로운 의제는 참여를 넘어 이수를 강조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중상 소득국가에서 초등교육 이수율은 92%, 중하위소득국가에서는 84%, 저소득국가에서는 51%였고 그중 빈곤 소녀 계층의 경우 25%에 그쳤다. 또한 고등학교 이수율은 고소득국가에서는 84%, 중상소득국가에서는 43%, 중하소득국가에서는 38%, 저소득국가에서는 14%였다. 고소득국가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조차도 93%로서 보편적 이수율에 도달하지 않는다. 저소득국가에서는 빈곤 소녀 계층의 1%만 고등학교를 이수한다.

“

의무교육 관련 자료가 있는
190개국 가운데
44개국(23%)은 9년 미만의
의무교육 기간을 정하고 있다.

무상 의무교육

주제별 지표 가운데 하나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1) 무상, 2) 의무 초·중등교육 연한(年限)이다. 의무교육 관련 자료가 있는 190개국 가운데 44개국(23%)은 9년 미만의 의무교육 기간을 정하고 있다.

”

의무교육의 경우 중간값 연한은 9년이고 무상교육은 11년이다. 그러나 무상교육 개념은 세부 목표의 진전 상황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등록금이 없는 곳에서조차 여러 종류의 교육 경비는 가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교육의 무상 정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교육 지출에서 각

수준의 가계가 부담하는 몫이 더 정확한 지표이다.

질적 측면

제시된 모니터링 체계는 학습성과나 평등과 관련된 지표를 제외하고는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질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전략에 따라 교실 관련 투입과 과정(classroom-related inputs and processes)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선별한다. 교과서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은 질적 측면의 결정적인 차원이지만, 학교 방문과 수업 관찰의 결과,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아주 의존할 만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차드에서는 읽기와 수학을 배우는 2학년과 6학년 학생의 약 90%가 적어도 다른 두 학생과 교과서를 같이 봐야 한다.

교육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수업 관찰법의 활용을 주장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매우 일관된 모니터링 도구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교수·학습이라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자메이카, 페루 등지에서 1만 5천 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은 자기 시간의 60-65%를 수업 연구에 사용하는데 이는 권장 수준인 85%에 못 미친다. 응용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하며, 타당하고 비용효율적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성과

학습성과를 개선하려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나 타당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측정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물음들이 있다.

읽기 능력과 수학 능력 등 앞서 제출된 글로벌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학습성과의 내용, 충족할 필요가 있는 질적 표준 평가, 활용할 보고 및 정의의 기준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한다.

학습성과 측정: 내용 정하기

어떤 평가든지 읽기와 수학 영역에서 최저 능숙도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초 척도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교육과정 사이에 공통의 기반을 찾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 교육과정에 걸쳐 나타나는 학습의 진전은 무엇인가? 어떤 질문들이 학습자가 특정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가? 숙련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두 가지 경합하는 문제들이 이러한 대답을 보여준다. 먼저, 읽기와 수학에 대한 저학년 평가는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나누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현장에서의 주요 과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낸다. 2012년 말라위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의 90%가 치체화

어(Chichewa)로 한 단어도 읽을 수 없었으며 거의 40%는 4학년 때까지 읽을 수 없었다.

둘째, 읽기와 수해 능력에 대한 글로벌 지표는 학교 밖 아동들을 제외한다. 파키스탄 농촌에서는 10학년 학생의 89%가 우르두어, 신디어, 파슈토어 등으로 2학년 이야기를 읽을 수 있지만 같은 나이(14살) 아동 전체 중에는 오직 64%만이 가능했다.

학습성과 측정 도구: 평가의 질적 수준 보장

한 가지 주제별 지표는 국가마다 초등, 초등학교 말, 중학교 말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지이다. 평가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처럼, 평가를 위한 명백한 표준이 필요할 것이다.

평가의 질적 수준의 두 가지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지속가능성과 교육제도와와의 강력한 연계를 보장하는 제도적 맥락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수준의 대표적인 평가는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대표적인 평가는 교육 목표, 학생들의 학습 목표, 전문적으로 교사들을 개발시키는 기회 등에 부합해야 한다.

평가가 모니터링의 목적에 맞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지나치게 엄격한 기술적 요건은 여러 국가의 역량 이상을 요구하여, 몇몇의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들만이 대부분의 평가를 관장하는 것을 초래해, 평가의 타당성과 국별 활용도를 약화시킨다. 둘째, 강력한 학습평가를 실시하는 국가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학습성과 측정: 여러 평가를 통한 결과 보고

전 세계적 규모로 학습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수준, 혹은 연령 그리고 주제별 기준을 보고하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상대적인 난이도 분석을 통해 연계될 수 있는 서로 다른 형태의 평가에서 여러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여러 기준을 연계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표의 의도된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전 지구적으로 비교 가능한 학습성과 지표들은 글로벌 모니터링의 목표뿐만 아니라 국가의 요구도 충족해야 한다. 양자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글로벌 학습 모니터링 연합(Global Alliance to Monitor Learning)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부목표 4.2

영유아

세부목표 4.2는 국제사회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해 모든 아동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보장하는 것을 재확인한다. 세부목표의 개념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세 가지 과제를 제기한다. 1) 적어도 1년 동안의 초등학교 취학전 교육에서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 2) 앞서 제출된 지표는 질적 측면은 포착하지 않는다, 3) 목표는 보육과 교육을 넘어서 유아 발달에까지 이르지만 후자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을 도입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 취학전 교육은 50개 국가에서 의무교육이고 적어도 38개 국가에서는 최소 1년 동안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접근과 참여

나라별 참가율을 비교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보다 취학전 교육이 더 어렵다. 취학전 교육 학령 집단과 시작 연령은 다른 학급에 비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비교적 적은 국가들이 무상 혹은 의무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한다. 50개 국가에서 의무교육이고 적어도 38개 국가에서는

적어도 1년 동안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보다 한 살 어린 아동의 67%가 취학전 교육 또는 초등교육에 진학한다. 이러한 추산은 1학년 학생 대상 취학전 교육 경험에 대한 가계 조사 추산과 가깝지만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 이 조사를 통해 가계의 부에 따른 출석률도 파악할 수 있다. 중하위소득국가에서 3-4세 아동 가운데 가장 부유한 가정의 아동들은 영유아 교육 진학률이 극빈 아동들보다 거의 6배 높다.

질적 측면

이 세부목표는 양질의 교육의 제공을 강조한다. 질은 학교와 교실 환경(구조와 교수 과정 포함)과 제도가 아동, 특히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의 전체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각국이 자국의 목표와 질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만, 비교 방법론으로 유아 대상 교육 제공에서 질적 측면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들이 있다. 다만 이 도구들은 정책적 논쟁을 촉발한다. 세계은행의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중하위소득국가의 21개국 가운데 13개국이 학생/교사 비율 기준을 수립했지만 8개국만 실행에 옮겼다.

아동 발달의 성과

세부목표 4.2는 아동들이 발달론적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형식교육을 시작하고 “초등학교에 준비된 상태”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전체론적인 관점은 보건 관련 지표에만 배타적으로 근거해 아동의 발달을 보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준다. 아동의 발달을 잘 측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복합적인 과제이다. 여러 문화에 걸친 규범적인 발달 경로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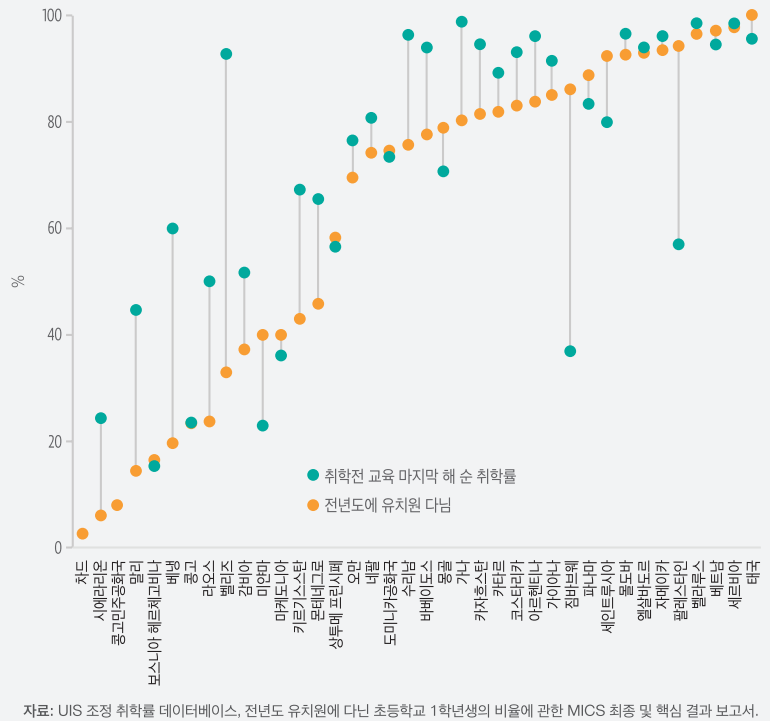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유니세프의 유아 발달 지수(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dex, ECDI)이다. ECDI에 따르면, 대부분 중하위소득국가인 56개국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세 아동의 70%, 4세 아동의 80%가 발달적으로 정상적이었다. 이 지수는 네 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중 하나인 문해와 수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인지 능력보다는 조기 교육 풍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는 상호작용과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가정 환경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성인 가정 구성원들은 거의 모든 3-4세 아동들이 적어도 4개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비해 가나에서는 오직 40%만이 참여한다. 2010년에서 2015년 기간에 대부분 중하위소득국가인 54개 국가에서 가정의 19%가 적어도 아동용 도서 3권을 가지고 있었고 7.5%는 적어도 10권을 소장했다. 가장 가난한 가정 20% 가운데 1% 미만이 최소 10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9: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가정 및 학교마다 차이를 보인다

취학 전 교육 최종학년의 순 취학률, 2014 및 전년도에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국가별 비율, 2010-2015





세부목표 4.3

기술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세부목표 4.3은 기술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글로벌 발전 의제 안에 도입한다. 이 주제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일부로 간주되었지만 단지 다른 목표들을 지원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었다.

이 세부목표를 위한 글로벌 지표인 과거 12개월 동안 형식·비형식교육 및 훈련에 청년과 성인의 참여 비율은 성인교육도 포함한다. 따라서 GEM 보고서는 접근성(access),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질(quality) 등 세 가지 개념의 관점에서 세부목표 4.3. 아래에 직업기술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등을 다룬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직업기술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은 기관, 직장, 혹은 양자를 결합한 곳에서 제공된다. 정책 계획, 제도적 배치, 조직적 접근 등이 다양한 상황에서 국가의 통계체제는 전체의 일부만 포착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 현황을 비교하기 어렵게 한다.

“ 12개국 대상 분석 결과는 청년의 약 20%가 직장 기반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특히 교육 부처가 관장하는 기관 등록을 강조한다. 이것은 세부목표 4.3의 모니터링 범위를 상당히 좁힌다. 직장 기반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려면 노동자, 기업,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정의와 설문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GEM 보고서의 12개국 대상 분석 결과는 청년의 약 20%가 직장 기반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을 보여주었다.

부담 가능성의 문제들은 정부 정책이 TVET 접근에서 어느 정도로 불평등을 다루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공자, 비용구조, 공공정책, 각국의 상황 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한 지표로 부담 가능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가능한 접근은 학생들이 받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규모와 비교해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관 수입 규모를 살펴보는 것이다.

TVET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믿을 만한 표준들이 국가의 자격기준계획에 명문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적어도 140개국은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계획들은 효과성 면에서는 다양하지만 학습자, 제공자, 사용자들이 자격 취득 방법보다 성과에 집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고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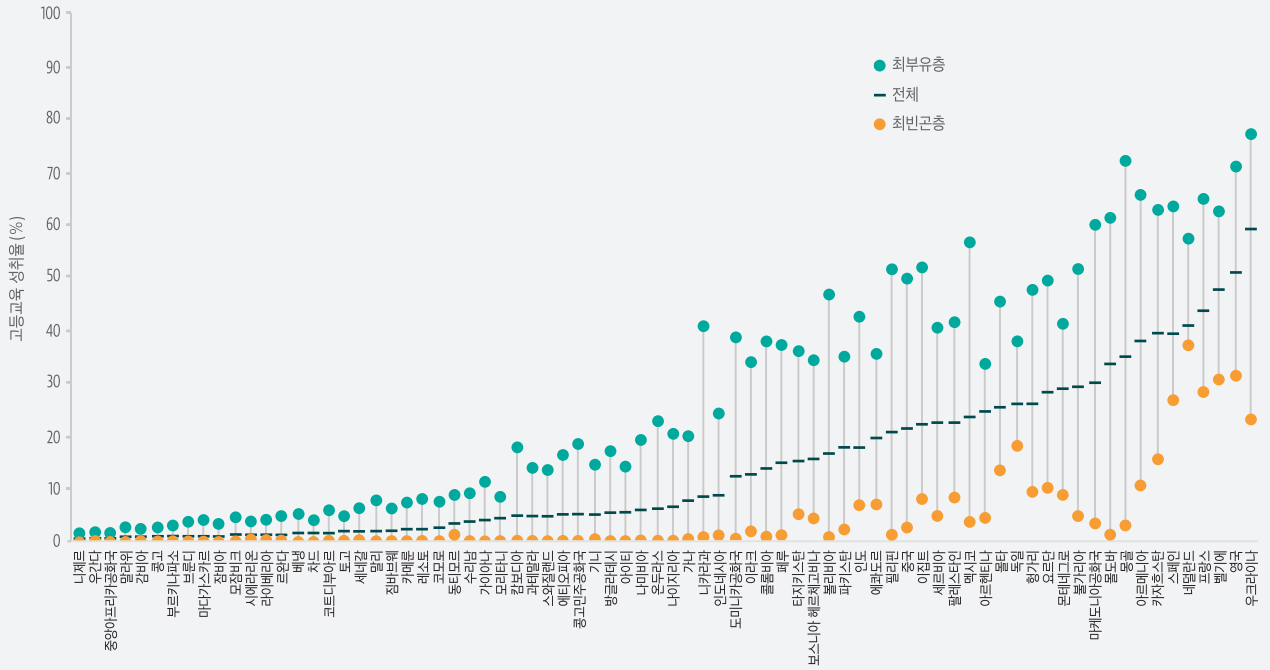
고등교육은 단기과정부터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있다. 기관들은 규모, 비용, 과정, 절차, 질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다. 형평성(equity)의 문제는 접근에서부터 졸업까지 다양한 단계에서의 장애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고등교육 진학률은 2000년 1억 명에서 2014년 2억 7백만 명으로 갑절 늘어났지만 국제 및 국내 불평등은 크다. 필리핀에서는 2013년 가장 부유한 25-29세의 52%, 가장 가난한 사람 가운데 1%만이 적어도 4년간의 고등교육을 이수했다.

고등교육의 부담 가능성은 비용과 소득 사이의 관계에 달려 있다. 총비용은 가계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가계 소득 수준과 비교할 수 있다. 이것은 유용한 지침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가능한 척도라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가정이 감당하는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다.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 사례 또한 파악해야 한다.

그림 10:

빈곤층과 부유층 사이에는 고등교육 성취도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소 4년간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재산별 25-29세 인구 비율, 2008-2014



자료: 가계 조사 데이터에 대한 GEM 보고서 팀 분석.

국가 정책 구조와 자원, 대학의 사명에 있어서의 차이는 고등교육의 질을 전 세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 대학 순위제는 이해하기 간단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교수의 질적 측면이나 학생의 학습보다는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성인교육

‘교육 2030 실행계획’에 따르면, 성인을 위한 학습, 교육, 훈련 기회는 세부목표 4.3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을 구성한다. 성인교육은 형식적(제도화)일 수도, 비형식적일 수도, 무형식적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다양성은 성인교육 참여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특별히 어렵게 한다. 형식교육에서의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일부 정보가 있지만, 이것은 전체 그림의 매우 작은 일부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28개 EU 국가에서는 성인의 약 6%가 형식교육, 37%가 비형식교육에 참여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성인교육 참가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담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사적 자원의 더 큰 역할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6개국에서 1개 미만의 국가가 성인교육에 GDP의 0.3% 이상 지출한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집단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질적 차원을 비롯해 성인교육 모니터링은 쉽지 않다. 3차 세계 성인학습 및 교육 보고서(Third Global Report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GRALE III)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자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인교육의 영향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각국은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막는 걸림돌에 대비한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세부목표 4.4

노동을 위한 기술

세 부목표 4.4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고용, 좋은 일자리, 기업 등을 위한 어떤 기술들이 다양한 맥락 전반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을 하는 데 특히 타당한가? 기술은 주로 교육, 훈련에서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획득되는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들은 타당하고 저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앞서 반영되어 있다. 하나는, 성인의 교육 성취율인데 이는 기술에 대한 측정이 아니다.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디지털 문해에 대한 것으로서, 의제를 좁히는 위험성은 있지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시도이다.

“

유럽연합에서는 성인의 44%가 스프레드시트에 기본 산수 공식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인지적 기술(Cognitive Skills)

기초 인지적 기술에는 문해와 수해(numeracy)가 있다. GEM 보고서를 위한 새로운 분석은 높은 문해력이 좋은 일자리를 보유할 가능성을 거의 2배 높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ICT는 일상생활과 일에 필수적이다. 2014년, EU 국가에서는 성인의 44%가 스프레드시트에 기본 산수 공식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루마니아에서는 16%, 핀란드에서는 63%이다.

”

디지털 문해 기술은 직접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척도이다. 2013년 체코공화국에서는 8학년의 85%가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작동 지식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태국에서는 13%, 터키에서는 9%였다. 국제 측정 도구는 시간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특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항에 내재한 문화적 편견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인지적 기술(Non-cognitive Skills)

인지적 과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과 협동 등 근본적이면서도 달성하기 힘든, 가장 가치 있는 일터의 기술은 쉽게 분류할 수 없다.

인내, 자기 통제, 사회적·정서적 기술 등 비인지적 기술이 어느 수준에 이를 때 긍정적인 고용 성과를 가장 잘 예측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부족하다. 최적 수준은 고용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비인지적 기술에 대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이다. GEM 보고서는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한 대규모 측정 작업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일터에서 비인지적 기술의 획득과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노동시장을 위한 인지적 기술과 비인지적 기술의 결합

노동시장의 세계와 관련해 인지적 기술과 비인지적 기술을 혼합한 두 가지 사례는 재정적 문해(financial literacy)와 기업가 정신 능력(entrepreneurship skills)이다. 최근 재정적 문해의 경험적 측정 방법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발전했다. 요컨대, 전 세계 성인의 33%는 재정적으로 문해자인데, 예멘에서는 13%, 노르웨이에서는 71%에 이른다. 기업가 능력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연구단계에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포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세부목표 4.5

평등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바램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스며들어 있고 불평등에 대한 글로벌 모니터링과 보고의 필요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GEM 보고서는 세 가지 주요 문제를 다룬다. 불평등과 그 변화를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개인들을 취약집단의 일원으로 지정하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양적 균등성(parity)을 넘어 교육에서 형평성(equity)의 어떤 측면들이 측정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 불평등 척도

저소득국가에서 부 평등지수는 초등학교 0.36, 중학교 0.19, 고등학교 0.07이다.

교육에서의 불평등 측정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이 관련된다. 먼저, 불평등은 예를 들어 접근이나 학습에 관한 광범위한 지표들을 참고하여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여러 불평등 척도들은 교육 지표가 우월한 계층과 취약 계층 각각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측정 방법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와 변화에 대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셋째, 정책 입안자들은 지표가 부(富)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국가 간에 이러한 특징들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다.

SDG 지표를 위한 기구 및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은 교육 불평등의 글로벌 척도로서 평등지수(parity index)를 제안했다. 이 척도는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가장 용이하고 지난 20년 동안 성불평등을 묘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 특징 가운데 부의 불평등이 가장 극단적이다. 중상위소득국가에서 이수율의 부 평등지수(wealth parity index)는 초등학교 0.90, 중학교 0.71, 고등학교 0.44이다. 저소득국가에서 부 평등지수는 초등학교 0.36, 중학교 0.19, 고등학교 0.07이다.

교육 불평등 지표 기관 그룹(Inter-Agency Group on Education Inequality Indicators)의 설립은 바람직한 방향을 향한 일보였다. 조사 자료와 가공되지 않은 자료의 출처를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원의 조정 결과가 각국에 전해질 필요가 있다.

젠더

2014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초등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에서 균등(parity)이 실현됐지만 비록 교급별로 개별 국가의 63%, 46%, 23%가 균등을 달성했을 뿐이다. 더욱이 국가 평균은 국가 내, 그리고 특정 집단 사이의 불평등을 은폐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의 가장 잘 사는 사람 중 초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성평등을 보고하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 20%에서는 남성 100명당 여성 83명만이 초등교육을 이수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학교의 경우 73명, 고등학교의 경우 40명으로 심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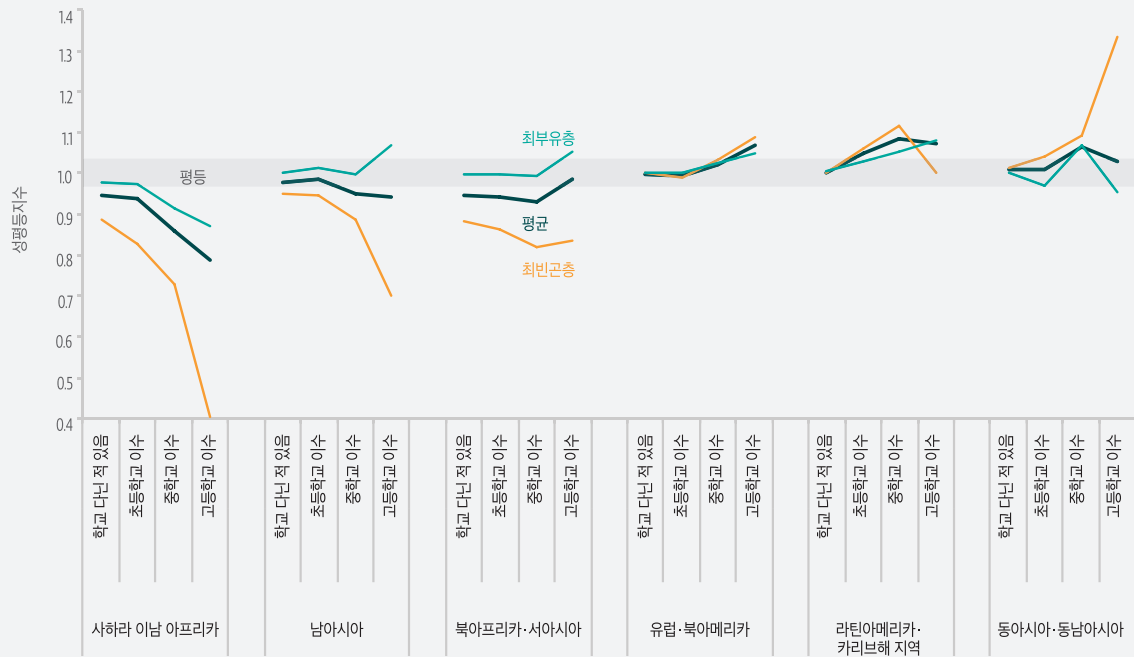
세부목표 4.5의 젠더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평등지수를 도입하게 되면 그 지수의 활용은 진학률을 넘어 학습성과 등 모든 교육지표로 확대된다. 이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지수는 교육의 성평등에 있어서 오직 몇 가지 영역만 다룬다. 교육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 교사교육 등 젠더 측면에 대한 더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교육에서 성평등 지표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성평등 지표를 연구하는 사람들 간 더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

표 2:
지역 및 국가 소득 그룹별 성평등지수, 2014

	초등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성평등지수	대상 국가(%)	성평등지수	대상 국가(%)	성평등지수	대상 국가(%)
세계	0.99	63	0.99	46	0.98	23
저소득	0.93	31	0.86	9	0.74	5
중하위소득	1.02	52	1.02	33	0.93	17
중상위소득	0.97	71	1.00	60	1.06	22
고소득	1.00	81	0.99	59	1.01	37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0.99	100	0.99	83	0.98	29
동아시아·동남아시아	0.99	86	1.01	57	1.01	37
유럽·북아메리카	1.00	93	0.99	67	1.01	31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0.98	48	1.03	39	1.13	19
북아프리카·서아시아	0.95	56	0.93	46	0.96	33
태평양	0.97	64	0.95	44	0.94	0
남아시아	1.06	29	1.04	25	0.94	38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0.93	38	0.88	19	0.82	6

비고: 모든 값은 중간값.
자료: UIS 데이터베이스.

그림 11:
성불평등은 최빈국에서 훨씬 더 높다
특정 교육 지표 대비 성평등지수, 부 및 지역과의 상호작용, 2008-2014



비고: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값 및 북아프리카·서아시아 값은 중하위소득국가에만 해당됨.
자료: 가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GEM 보고서 팀 분석(2016).

장애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 접근에 관한 진행 상황을 정의하려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장애 관련 측정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례로, 유럽의 30개 교육체제에서는 2010년에 의무교육 학생의 3.7%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니세프와 워싱턴 장애 통계 그룹(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은 장애에 대한 실제적인 실행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자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학교의 기반 시설들이 장애학생들의 필요에 부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언어

모어 기반 다언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은 교육 성과에서 심각한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육에서의 언어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40%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이해하는 언어로 진행되는 수업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문서를 모니터링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국어로 된 교수학습 자료를 이용하는지, 교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공식 정책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말리의 몹티(Mopti) 지역에서는 국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1%만이 적절한 언어와 훈련받은 교사에 의한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했다.

“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학령 난민의 50%와 중등학교 학령 난민 75%는 학교 밖에 있다.

”

이주와 강제 이동(forced displacement)

공립학교 진학이 제한적인 빈민가나 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국내 농촌 이주자들을 적응시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는 일반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한다. 국제 이주민들의 경우, 학생들이 취약 지역에 있는 학교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다.

주요 과제는 강제 이주민들과 관련된 것이다. 국내 이주민은 여전히 가시성이 높지 않다. 2015년 나이지리아 6개 주의 42개 난민 캠프 가운데 19곳에서 아동들은 형식 또는 비형식교육에 접근하지 못했다. 난민은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학령 난민의 50%와 중등학교 학령 난민 75%는 학교 밖에 있다. 이주자들과 강제적으로 터전을 떠난 사람들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교육 접근에서 불평등의 이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세부목표 4.6

문해와 수해

세 부목표 4.6은 EFA의 네 번째 목표였던 성인문해에 초점을 맞추고 두 가지 중요한 혁신을 가져온다. 먼저, 문해와 수해 관련 글로벌 지표는 기술 숙련도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문해를 기초적인 인지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개인의 변화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는 능력으로 보는 견해와 가깝다. 둘째, 명시적으로 수해를 언급하는 것은 그 속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성인문해 프로그램 참여

형식 및 비형식 문해 프로그램에 성인들의 참여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성인학습 및 교육 보고서(GRALE)는 적어도 공적으로 제공되고 후원받는 문해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들의 참여에 초점을 맞춘 표준 보고 템플릿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GEM 보고서를 위한 새로운 분석은 한때 인구통계·보건 조사에 정기적으로 포함된 질문들을 사용했다. 이는 29개 중하위소득국가에서 2004년과 2011년 사이에 15세에서 49세까지의 성인 중 6%만이 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인 비문해자들 중 다수는 여성과 빈민이었지만, 문해 프로그램에는 남성과 부유한 성인이 더 많이 참여했다.

문해율

SDG 의제가 문해력 수준에 대한 측정으로 올바르게 방향 전환하고 있지만 필요한 측정 도구들이 널리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문해율에 기초한 청년 및 성인문해에 바탕을 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2005년에서 2014년에 걸쳐, 7억 5,800만 혹은 성인 인구의 15%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문해능력을 견여했고, 이들 중 63%가 여성이다.

문해와 수해 능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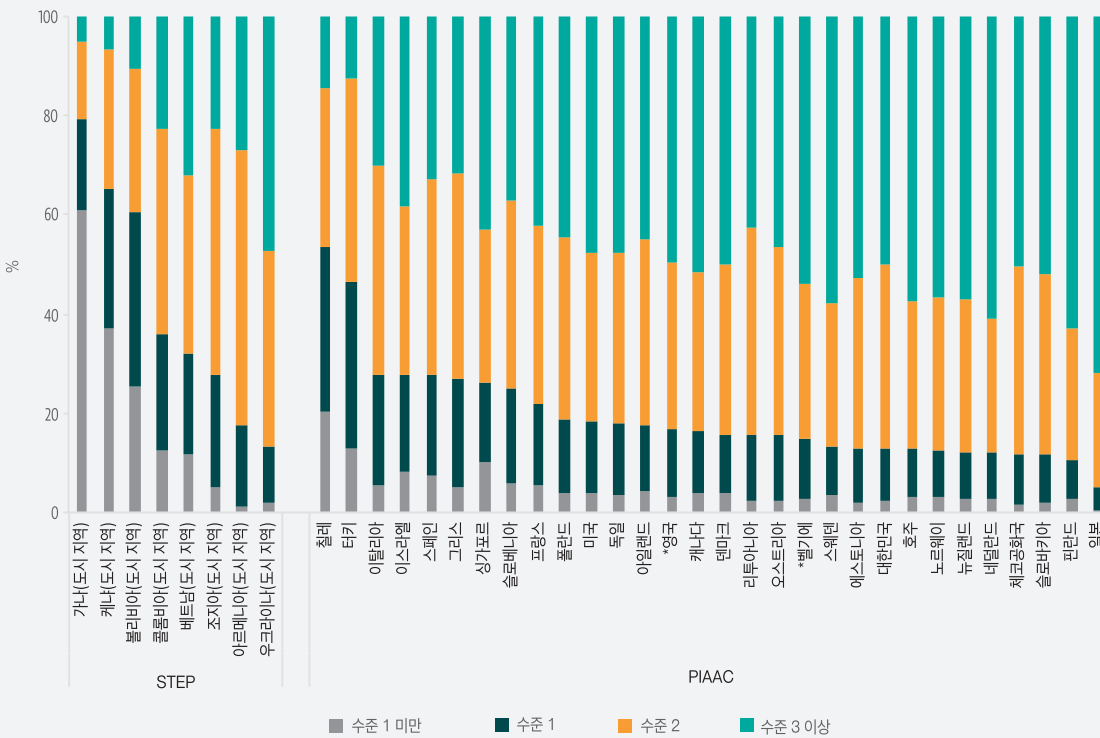
문해와 수해의 성취 수준에 대한 정보는 직접적으로 평가되는데, 많은 고소득국가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OECD 성인역량 국제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참가자 가운데 15%는 기초 문해 성취 표준에 못 미쳤는데, 이는 문서에 대한 낮은 수준의 추론 능력과 관련된다. 그 비율은 일본에서는 5% 미만,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28%였다.

문해와 수해의 비교평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유용한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 나름대로 진행하는 역량과 글로벌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평가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림 12:

연속 척도에 따른 문해율 평가는 성인의 문해력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문해력 수준별 성인 인구, 2011-2014



비고: 별표(*) 국가의 경우 PIAAC 데이터는 아래 개별 지역만 가리킴: 영국의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
 자료: OECD(2013, 2016) 및 세계은행 STEP 데이터를 이용한 GEM 보고서 팀 분석.



세부목표 4.7

지속가능발전과 세계시민성

다른 어떤 세부목표보다 4.7은 교육의 사회적, 인본적(humanistic), 도덕적 목적을 다룬다. 세부목표 4.7은 교육을 SDG 다른 목표와 명시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글로벌 발전 의제의 변혁적 포부를 강조한다.

이번 GEM 보고서는 앞서 만들어진 글로벌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이 어떻게 체제 전반적인(system-wide) 개입 조치,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교육과정 자료, 교사교육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는지 검토한다.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를 정하는 것은 고된 일이다. 이 보고서는 관련 지식, 기술, 그리고 청년과 성인들의 태도의 습득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부목표 4.7은 평생학습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목표와 관련된 주제가 적용 대상이 되는 교급이나 연령집단을 특정하지 않는다. 앞서 제안된 글로벌, 주제별 지표들은 주로 형식교육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다. 주제별 지표 가운데 어느 것도 비형식교육이나 무형식교육의 성인 학습자를 명시적으로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지속가능발전과 세계시민성을 증진하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일반적이고 주된 방식이다. 주제별 지표 중 하나는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n Human Rights Education)의 각국 이행상황을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지표는 세부목표 4.7의 요소들을 인권, 기본적 자유, 관용 등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것이다.

세부목표 4.7을 위한 또 다른 주제별 지표(HIV/AIDS와 성에 대한 생활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는 인권, 성평등, 평화의 문화, 비폭력,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의 증진을 위한 지식과 기술 등 세부목표 4.7의 다섯 가지 요소들에 대한 것이다. 이 지표를 교육관리 정보 시스템과 학교 기반 조사에 포함하는 작업들이 몇몇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로써 향후에 좀 더 나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2005-2015년 기간에 전체 대상국의 4분의 3이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강조했다.”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 세부목표 4.7의 이행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목록이 필요하다. 78개국의 110개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GEM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2005-2015년 기간에 전체 대상국의 4분의 3이 지속가능발전 문제를 강조했다. 세계시민성 관련 용어를 언급한 나라의 수는 훨씬 적었다. 성평등 역시 그다지 널리 확산되지 않았다. 15% 미만의 국가들이 젠더 역량 강화, 성균등, 혹은 성인지도 등의 용어를 통합했고, 절반은 성평등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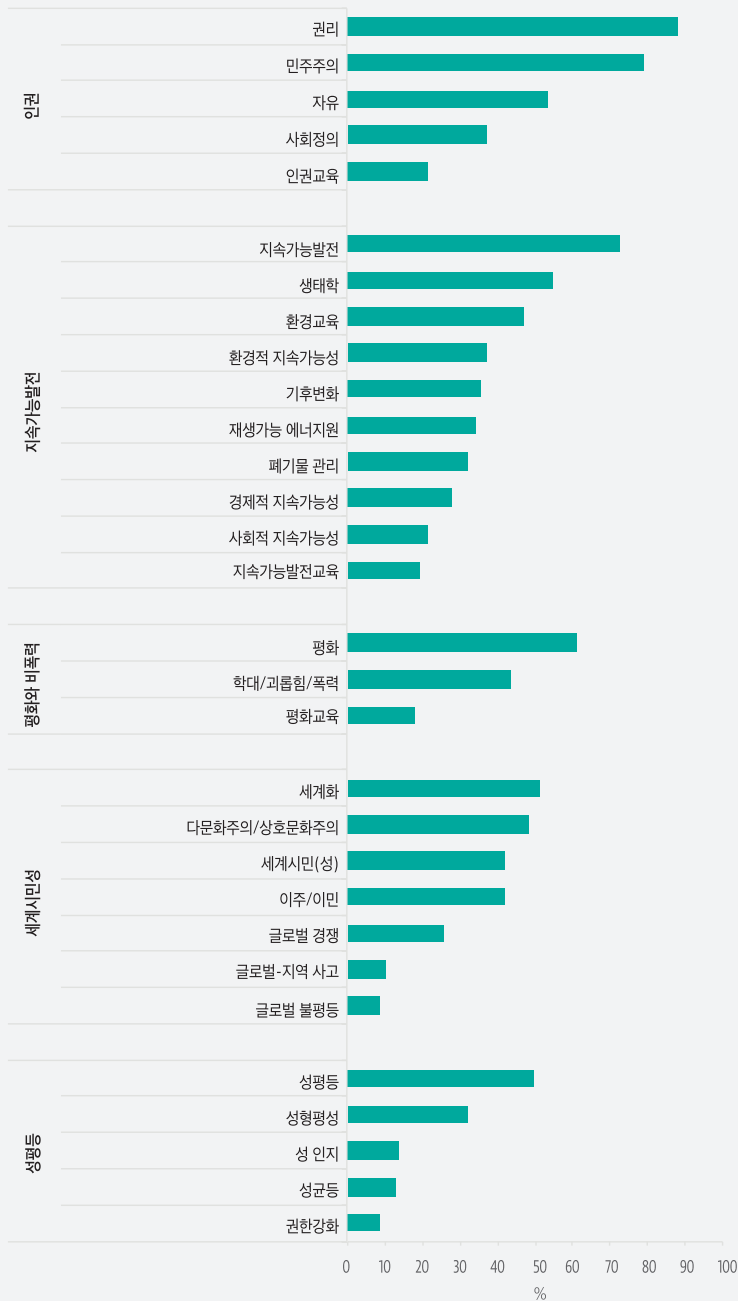
교과서

교과서 내용 분석에 있어서 최근의 전개상황을 보면 교육과정의 내용을 측정하는 데 있어 큰 이점이다. 이번 GEM 보고서의 경우 중등학교의 역사, 공민(civics), 사회, 지리 과목 교과서에 대한 세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분석 결과, 2000-2013년에 인권을 언급한 교과서는 5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1890-1913년에는 약 5%였다.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는 전체 교

그림 13:

인권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다

자국의 교육과정 체계에서 아래 핵심 용어 각각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 비율, 2005-2015



비고: 이 분석은 78개국 표본을 바탕으로 함.
 자료: 국제교육국(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 (2016).

과서의 약 10% 이상이 지난 10년간 여성의 권리를 언급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교과서를 활용하면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척도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과서 내용에 대해 전 지구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기제(mechanism)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교육

교사들은 지속가능발전이나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005년의 2%에서 증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2013년에는 조사대상 66개국의 8%만이 교사교육에 지속가능 발전을 포함했다. 교사훈련 프로그램 내용은 쉽게 얻을 수 없으나 대부분은 지역 차원의 몇몇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교사들의 준비와 훈련을 위해 세부 목표 4.7의 여러 개념들을 평가하는 한층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훈련 기관의 교육과정에 표준 코딩 프로토콜(standard coding protocol)을 적용하면 교사들이 다양한 학생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개발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

교실 밖 활동

학생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술동아리, 학생 모임, 스포츠, 토론 동아리, 연극 활동, 음악 동아리, 자원 활동 등 기타 활동을 통해서 지속가능성과 세계시민성 문제를 접하게 된다. 이번 GEM 보고서를 위한 분석에 따르면, 갈등 해결과 사회적 화합에 기여하는, 잘 설계되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활동은 인권 관련 법적 체계와 개념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시민의식을 증진한다. 기존의 데이터 수집 도구들은 이러한 활동들의 경험과 전개 과정에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있다. 공통의 보고 기준이 없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한한다.

성과

목표 4.7의 핵심적 포부인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획득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세계사, 지리, 국제기구, 전 지구적 과정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상호존적인 이해는 출발점 구실을 할 수 있으나 이 영역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는 거의 없다. 많은 국가에서 학생의 3분의 2만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알고 있다.

주요 도전과제는 지역의 가치와 전 지구적 지향 사이의 긴장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의 활동들은 주로 중등교육에서 청소년과 관련해 세부목표 4.7에 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자 한다. 2016년, 유네스코와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함께 세계시민성과 지속가능발전 지식에 대한 측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동남아시아 기초학습지표(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는 5학년의 세계시민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 조건을 적절히 고려한 비교평가 체계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목표 4.A

교육 시설과 학습 환경

세 부목표 4.a는 아동 중심성, 민주적 참여, 포용성을 아동 친화적 학교의 원칙으로 본다. 이 모든 것들을 글로벌 모니터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운데 학교의 기반 시설, ICT 활용, 학교 폭력 등 세 가지 측면은 유용하다.

“

그러나 2013년에는 초등학교의 71%만이 적절한 물 공급을 받았고, 49개 최빈국에서 이 수치는 52%에 불과했다.

”

학교 인프라

교육 기관의 물, 위생 시설을 개선하면 보건과 교육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초등학교의 71%만이 적절한 물 공급을 받았고, 49개 최빈국에서 이 수치는 52%에 불과했다.

학교가 안전하지 않을 때 자연의 위험이 가져오는 충격이 확대된다. 몇몇 나라는 학교 안전을 면밀히 조사하지만 모든 나라가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 도구들이 개발되어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학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들은 학교에 접근하려면 광범위한 물리적·사회적 걸림돌을 극복해야 한다. 접근성 있는 학교에 대한 개념규정이 없고 제한된 모니터링 역량으로 인해 학교 시설이 장애 아동들에게 적합하지 알기는 어렵다.

학교에서의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에서 ICT 모니터링의 기초가 되는 것은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의 2003 제네바 실행계획(2003 Geneva Plan of Action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으로서, 교육 관련 두 가지 세부목표를 제시했다.

학교에서 ICT를 사용하려면 손쉽고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전력의 부족은 ICT의 사용을 방해한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어떤 초·중등학교도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기니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컴퓨터 한 대당 학습자가 500명 이상이다.

학교 폭력

학교 관련 폭력 행위 혹은 위협은 학교뿐만 아니라 등굣길, 가정 혹은 사이버 공간 상에서도 발생한다. 보통 극단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만 폭력의 더 일반적인 형태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경험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폭력은 종종 금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가 되어 있지 않는다.

폭력은 가장 널리 기록되고 있는 학교 폭력 양상이다. 2011년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조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TIMSS)에서 8학년 학생의 41%는 이전 달에 적어도 한번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

“ 37개국에서 13세에서 15세의 40%는 2009-2012년간 물리적 싸움에 관여했다고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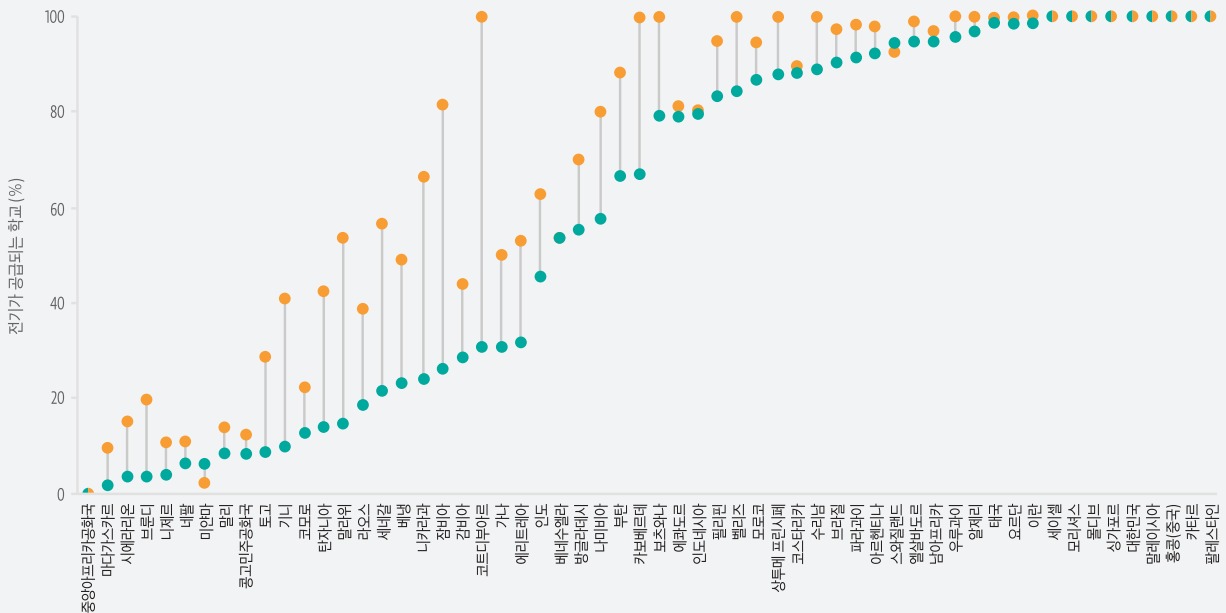
되었다. 37개국에서 13세에서 15세의 40%는 2009-2012년간 물리적 싸움에 관여했다고 보고되었다. 성폭력은 학교에서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폭력으로서, 그 규모와 범위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국제 조사들은 전 세계 학교 관련 폭력 경향을 일관되게 측정하기 위해 설문 내용을 더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 관련 폭력에 대한 모니터링은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하다. 2005-2015년간 26개국에서 학교를 군사적으로 사용했고, 2009-2012년에는 6개국에서 국가별 1,000회 또는 그 이상의 교육 관련 폭력이 발생했다.

그림 14:

일부 최빈국에서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전기가 공급되는 초·중등학교 비율



자료: UIS 데이터베이스.



세부목표 4.B

장학금

세부목표 4.b는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보편적인 의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모든 세부목표와 마찬가지로, 이 세부목표는 국가간의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지만 국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장학금 수혜자들이 유리한 배경을 지니는 경향이 있고, 많은 장학금 수혜자들은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장학금이 가난한 국가 대신 잘 사는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 54개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15년에 약 2만 2500회의 장학금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저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로부터 유학생의 1%에 해당된다. ”

세부목표 4.b는 몇 가지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장학금은 학생의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적어도 일부는 공적 지원을 받을 때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해외 이동률, 즉 해외에 공부하러 나가는 학생들의 숫자는 그 국가의 총 고등교육 진학률 비율로 표현되는데, 개도국의 경우 1.8%이다. 그러나 몇몇 국가, 특히 군소도서 개도국의 경우 훨씬 더 높다. 세인트루시아에서는 학생 10명당 해외 유학생 수가 5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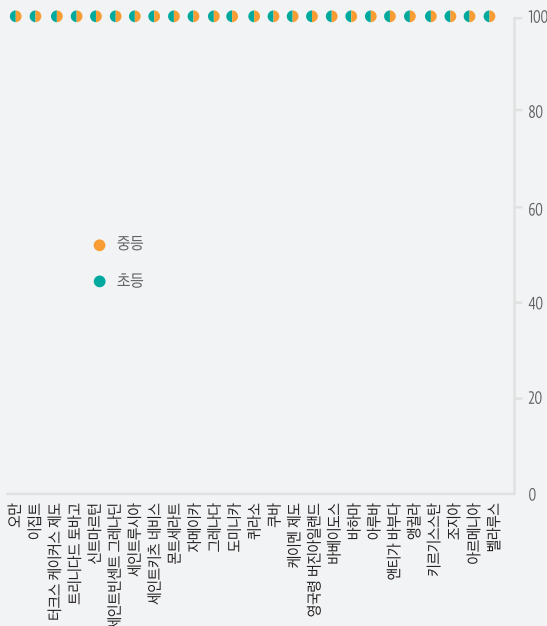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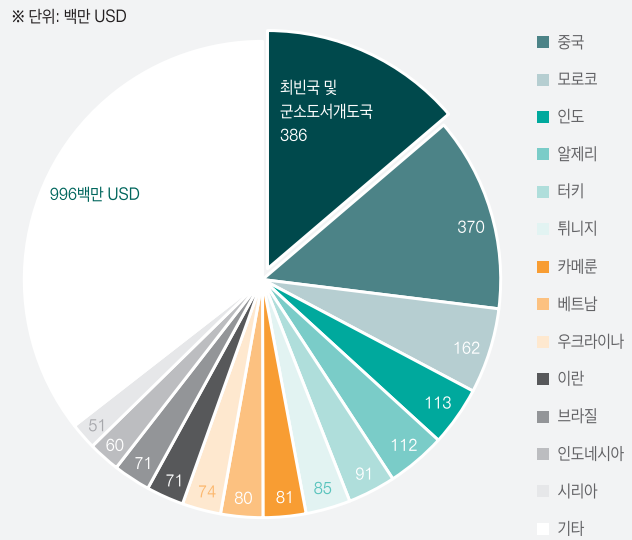


그림 15: 장학금 원조와 학생 지원 간접비의 절반이 13개 중위소득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수혜국별 장학금 및 학생 지원 간접비 분포, 2014



자료: OECD DAC 데이터를 활용한 GEM 보고서 팀 분석(2016).

놀랍게도, 수혜자의 국적이나 연구 분야는 물론이고 장학금 수에 대한 확립된 전 세계 차원의 증거가 없다. GEM 보고서를 위해 54개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15년에 약 2만 2500회의 장학금이 제공되었으며 이는 저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로부터 유학생의 1%에 해당된다.

지급된 장학금 수, 장학금 지급 연수, 연구를 마친 수혜자 수, 귀국한 수혜자 수 등 장학금 지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 세계 차원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원조 자료는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14년에는 28억 USD가 장학금과 학생 간접 비용에 배정되었다. 이 가운데 3억 8천6백만 USD가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도국으로 전달됐다.



세부목표 4.C

교사

SDGs가 교사를 이행 수단으로 다루고 양질의 교육과 효과적인 학습환경 제공하는 데 교사의 근본적인 기여를 과소평가하는 위험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 세부목표의 구성 체계는 취약하고 핵심적인 교사 문제를 제한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GEM 보고서는 교육 2030의 좀 더 일반적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다루는데, 이는 ‘교육 2030 실행계획’에 “교사와 교육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적절하게 채용하고 훈련을 잘 시키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며 동기를 유발하게 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로 표현되어 있다.

자격을 갖춘 교사들의 적정 공급

과밀학급은 많은 최빈국에서 여전히 일반적이는데, 이는 부적절한 교사 공급을 가리킨다. 교사 부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주요 어려움이 있다. 교사 이용가능성의 평균치에 대한 통계는 국가 내 실질적인 불평등을 가리고 교사의 양은 질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종종 고용 기준을 낮춤으로써 진학률의 확대와 학급 규모의 증가에 대응한다.

이 세부목표가 자격을 갖춘 교사의 공급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데, 주로 학문적 자격요건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2014년에는 평균적으로 교사의 82%가 취학전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 초등교육은 93%, 중등교육은 91%였다.

세부목표 4의 전 세계 지표인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교사의 비율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만 국가 표준과 비교할 기준이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교사들이 최소한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85%가 훈련을 받는다.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는 취학전 학교 교사의 73%가 훈련을 받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취학전 학교 교사의 절반, 고등학교 교사의 4분의 3 이하가 훈련을 받는다.

2002-2014년 기간 동안 교사 훈련에 대한 원조가 2억 5천1백만 USD로 3배 늘어났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총 직접 원조액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가장 발전이 되지 않는 나라들은 총 교사훈련 원조의 41%를, 군소도서개도국은 7%를 받았다.

교사의 동기부여와 지원

교사를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할 것인가는 ‘교육 2030 실행계획’에 반영된 주요 정책 관심사 중 하나이다. 교사에게서 동기와 직업 만족도 등에 관한 요소 등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 보고서는 지도, 멘토링,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근무 조건, 급여 등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외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2013년 국제 교수학습 조사(2013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에 따르면, 교직 경력 5년 미만의 중학교 교사의 약 25%는 멘토가 있었는데, 이 수치가 칠레에서는 6%, 이탈리아에서는 9%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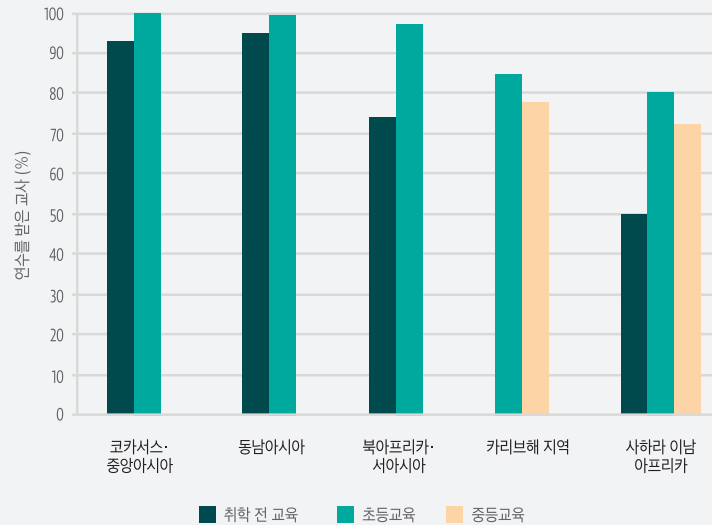
경쟁력 있는 보수는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교사가 평균적으로 다른 직업의 70%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우루과이에서는 교사들의 위상이 다소 높다.

전반적으로 급여, 근무조건, 자연감원 등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림 1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취학 전 교육 교사의 절반, 중등학교 교사의 4분의 1이 교사연수를 받지 못한다

교육 수준 및 지역별 연수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 비율, 2014



자료: UIS 데이터베이스.



세부목표 4.5

재원조성

2030 의제는 이행 수단과 관련해 세 가지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평하고 적절한 재원조달의 부족이 2015년 전 세계가 EFA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였음에도 그 어느 세부목표도 교육 부문의 재원조달을 언급하지 않는다.

재원조달에 관한 세부목표의 부재와는 무관하게,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재원조달 관련 자료는 교육 부문의 효과적인 기획과 글로벌 교육 의제에 대한 모든 파트너들의 노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국민교육계정(National Education Accounts)

교육 재원조달에 대한 논쟁은 정부 지출, 외부 지원, 가계 지출 등과 같은 교육 지출 재원이 어떻게 서로 결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보건 부문은 보건 지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 국민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s)을 개발했다.

최근의 한 프로젝트는 8개국에서 국민교육계정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네팔 정부는 GDP의 3.5%를 교육에 지출했는데, 베트남보다 2.6% 낮은 수치다. 그러나 가계와 다른 자원들을 고려하면 그 순서가 바뀐다. 네팔은 베트남보다 교육부문에 1.5% 더 많이 배정하는 셈이 된다.

재정 자료의 개선

강력한 국민교육계정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원조 파트너, 가계 등의 지출 정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공지출

‘교육 2030 실행계획’은 두 가지 기준을 ‘결정적인 준거점’으로 제시했다. 하나는 적어도 GDP의 4-6%를 교육에 배정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적어도 공공지출의 15-20%를 교육에 배정하는 것이다. 전 세계 각국은 GDP의 4.6%를 교육에, 공공지출의 14.2%를 교육에 배정한다. 적어도 35개국은 GDP의 4% 미만, 공공지출의 15% 미만을 교육에 배정한다.

표 3: 지역 및 국가 소득 그룹별 공공 교육 지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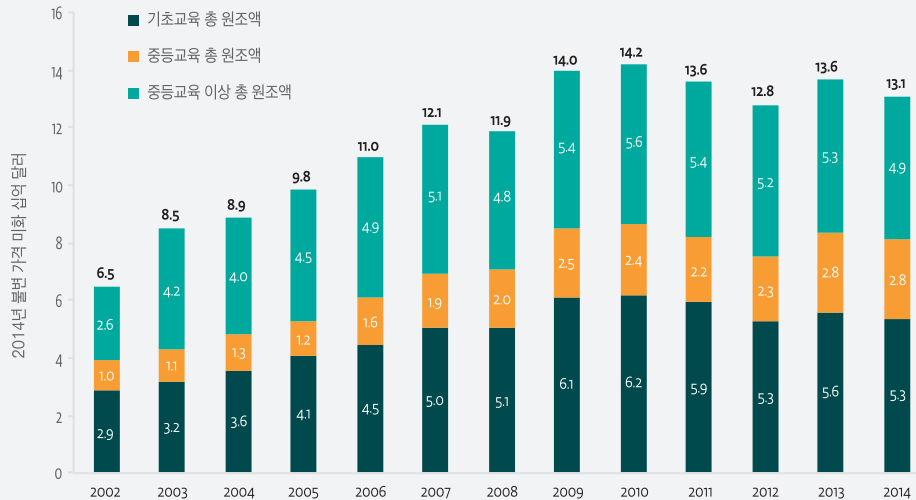
	GDP 대비 공공 교육 지출 %	GDP 4% 미만 지출 국가 수	공공 지출 대비 공공 교육 지출 %	공공 지출 15% 미만 지출 국가 수	GDP 4% 미만, 공공지출 15% 미만 지출 국가 수
전 세계	4.6	51	14.2	70	35
저소득	3.9	13	16.7	9	9
중하위소득	4.1	13	15.6	13	10
중상위소득	4.6	9	15.7	11	7
고소득	4.9	16	11.9	37	9
코카서스·중앙아시아	2.8	4	12.9	3	3
동아시아·동남아시아	3.9	7	15.4	6	4
유럽·북아메리카	5.0	7	12.1	31	5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4.9	7	16.1	6	3
북아프리카·서아시아	...	3	...	5	3
태평양	...	2	...	2	1
남아시아	3.8	5	15.3	4	4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3	16	16.6	13	12

비고: 모든 값은 중간값.
자료: UIS 데이터베이스.

그림 17:

교육 원조 규모는 아직 201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총 교육원조 지출, 2002-2014



자료: OECD CRS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따른 GEM 보고서 팀 분석.

핵심적인 공교육 재원조달 지표를 분석하면 정보가 일정하지 않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00년 이래 여러 국가 가운데 60%만이 GDP 대비 총 교육 지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 지출에 관한 양질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국가 수준에서의 양질의 공공지출 관리가 중요하다.

공공지출에 대한 검토는 그 초점을 교육의 형평성과 교육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계층에 대한 보상까지 넓혀야 한다. 국가 별 비교는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과정 도입, 기본 계획(framework) 설립 및 실제 평가 수행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국이 본 궤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울 수 있는 상호 평가(peer review) 메커니즘의 수립을 강조해야 한다.

원조 지출

연간 재원조달 격차인 390억 USD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조가 적어도 6배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에는 원조 수준이 최고점에 다다른 2010년보다 원조액이 8% 낮았다. 공여자들이 국민총소득의 0.7%를 원조에, 원조의 10%를 기초교육과 중등교육에 배정한다면 이 격차는 메워질 수 있다. 2005년 이래 총 원조량은 공여국 국민소득의 약 0.3% 수준에서 오르내렸다.

더 가난한 나라가 원조 대상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에는 초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아동의 43%에 해당하는 저소득국가가 기초교육 총 원조액의 28%를 받았다.

인도주의적 원조의 수준 역시 추적할 필요가 있다. 2015년에 교육 부문은 1억 9천8백만 USD를 받았는데 총 인도주의적 지원액의 1.9%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가계 지출

교육 총 지출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몫은 부유한 국가보다 가난한 국가에서 훨씬 높은 경향이 있다. 그 몫을 줄이는 것은 새로운 교육 목표가 추구하는 평등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가계 지출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다. GEM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중하위소득국가 99개국이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국가 지출 조사에 관련 질문을 포함한 바 있다. 67개국은 개인 지출 항목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거의 잘 사용되지 않는다. 정책 입안자들이 자료의 존재와 중요성을 모를 수 있고 자료를 분석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이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체제

“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적 혹은 하위지역적 접근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교육 2030 의제의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검증되고 질적 수준이 매우 높으며 광범위한 교육체제와 정책 지표들이 필요하다.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적 혹은 하위지역적(subregional) 접근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교육체제 모니터링을 위한 글로벌 도구들

” 유네스코 교육국(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IBE)은 1996년에 세계교육데이터(World Data on Education) 시리즈를 만들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 체제에 관한 소중한 정보원이었으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진전이 둔화됐고 2011년 마지막으로 발행된 후 현재로서는 그 시리즈를 업데이트할 계획은 없다.

유네스코는 무상 의무교육이나 TVET 시스템과 관련해 교육체제에 관한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2011년 시작된 세계은행의 교육성과 개선을 위한 시스템 접근(Systems Approach for Better Education Results, SABER)은 좀 더 심도 있는 정책 검토를 제공한다. SABER는 국가 교육체제의 13가지 측면을 검토한다. 이것이 글로벌 모니터링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검토의 범위, 정기성에 대한 합의, 국가의 주인인식(ownership) 강화 등 적어도 두 가지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교육체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적 도구들

모니터링은 글로벌 차원보다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적 정치 단위(entity)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교육체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경향이 있다. 세 가지 사례가 눈에 띈다. 1980년에 설립된 유럽교육정보네트워크(Network on Education Systems and Policies in Europe, Eurydice)는 36개국의 40개 민족 단위의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OECD의 국제교육지표사업(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INES)은 1992년에 도입되었다. INES의 세 가지 네트워크 중 하나는 2009년에 INES의 시스템 차원 지표 네트워크(Network for System-Level Indicators, NESLI)로 진화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기구(Organization of Ibero-American States)는 지표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교육전략과 전문 기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시스템 관련적이다.

GEM 보고서는 교육체제 지표들을 모니터링하는 굳건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각국 정부가 지역 수준에서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여타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있어서 교육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별도의 교육 목표가 지닌 중요성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다른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SDG 4 이외의 다른 SDGs 가운데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지표들이 있다.

“ 교육은 SDG 4이외의 5개 글로벌 지표에서 직접 언급된다. ”

직접적 언급

교육은 SDG 4이외의 5개 글로벌 지표에서 직접 언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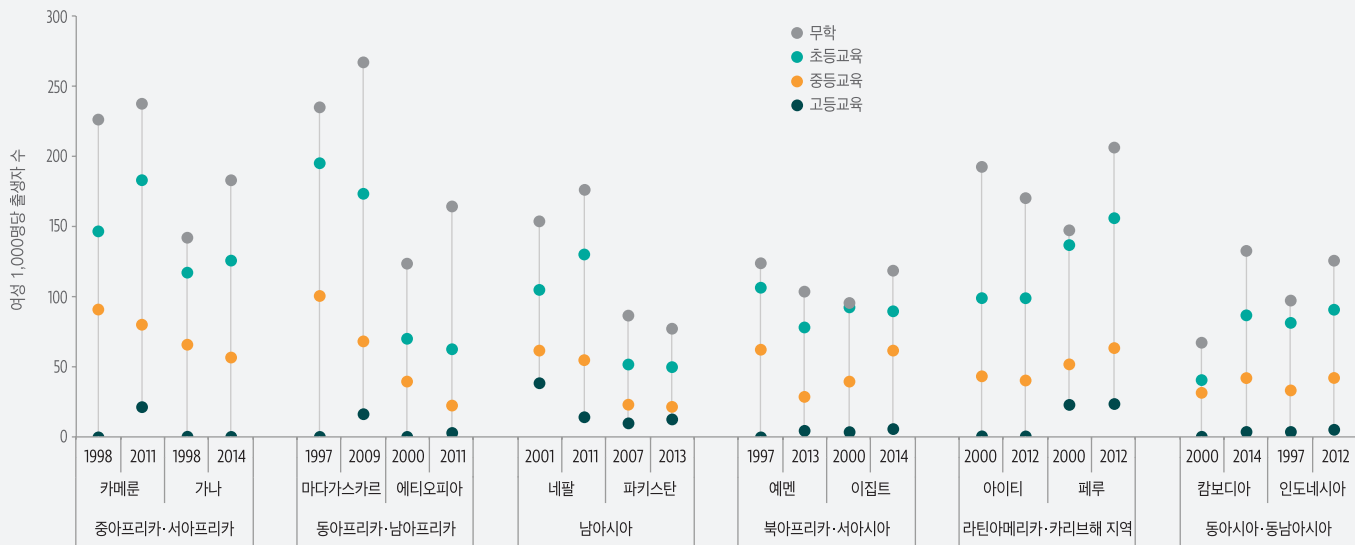
교육은 SDG 4이외의 5개 글로벌 지표에서 직접 언급된다. 1) 교육, 보건, 사회적 보호 등에 대한 정부 지출, 2) 성평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교육, 3) 교육, 고용, 훈련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 4) 세계시민교육, 5)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이다.

간접적 언급

앞으로의 GEM 보고서는 교육을 직접 언급하는 지표의 모니터링 외에도, 다른 SDGs에서 교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례들이 강조된다. 다른 발전 성과와 관련된 요소로서의 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교육과 관련된 인적 자원 역량을 언급하는 지표들, 성인교육의 잠재적 역할.

교육 수준에 따라 관련 글로벌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SDG 세부목표들의 성취를 방해하는 기본적인 불평등을 조명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지표에는 빈곤, 영양실조, 조혼, 개선된 위생시설 이용, 전기 이용, 실업, 슬럼 인구, 재 활용, 재해 사망자 수, 폭력과 출생 등록 등과 관련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2008-2015년 자료가 있는 54개 중하위소득국가에서 여성 1,000명당 평균 출생자 수를 보면 무학 여성은 176명, 초등교육 이수 여성은 142명, 중등교육 이수 여성은 61명, 고등교육 이수 여성은 13명이었다.

그림 18:
교육은 바람직한 발전 성과와 명확하게 연관되어 있다
청소년 출산율(15-19세 여성 1,000명당), 1997-2014



자료: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STATcompiler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있어서 교육 부문 모니터링의 우선순위

SDG 4 세부목표 각각의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우선 활동 순위가 나타난다. 이는 SDG 4 이행을 둘러싼 글로벌 대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비교 가능하고 충분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수준의 모니터링이 그 국가의 맥락과 구체적인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별 교육 부문의 이행상황을 점검을 저해하지는 않는다.

앞서 제시된 모니터링 기본 계획안은 국제 기구와 국가 기구가 진전 상황과 측정 과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새롭게 구성된 전문가 협력그룹(Technical Cooperation Group, TCG)은 국가 대표성이 강한데, 이 기본 계획의 개발과 그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모니터링 관련 국제적인 대화를 촉진한다.

국가 차원: 6개 핵심 영역에서의 역량 구축

각국이 향후 3-5년 안에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보를 이룩하기 위해 6개의 핵심 단계가 제시된다.

평등: 기본적 불평등을 조명하고 훨씬 광범위한 정보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처와 국가 통계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학습성과: 각국은 표본에 기반한 강력한 국가 학습 평가를 정착시켜 여러 시간에 걸쳐 학습의 진보를 점검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질적 수준: 각국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세부목표 4.7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 각국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성인들의 교육 수요, 기회, 성취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체제: 지역(regional) 기구들은 각국에 교육제도의 특징과 상호 학습 관련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적절한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재정: 교육 지출이 정부, 공여자, 가정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각국에 국민교육계정 접근법의 채택을 장려한다.

지역 차원: 상호 학습 지원

각국은 지역 네트워크를 상호 학습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한다. 예를 들어, 교육에서의 불리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는 목적 및 정책 관련 정보나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글로벌 차원: 합의와 조정 촉진

글로벌 이슈에 대한 측정 수단과 연구를 조정하기 위한 세 가지 단계가 제안된다. 몇 가지 주요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된 국제 가계조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자들 사이에서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비롯해 학습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일관된 방법 또한 필요하다. 세계 교육 현황 측정을 위한 연구 허브의 수립이 강력하게 권장되는데, 이때 핵심 교육성과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는 데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에서의 데이터 혁명을 위해서는 기본 개념, 튼튼한 체제에 대한 투자, 데이터 접근성, 개방성, 책무성 등의 보장을 위한 조정 등의 합의가 필요하다.



방글라데시 치타공
여느 학교의 신발장.
그날 등교한 학생 수를
보여준다.

CREDIT: Ripon Barua/UNESCO

사람과 지구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

<사람과 지구를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는 지구, 번영, 사람, 평화, 장소, 파트너십 등 6개의 기본 축을 아우르면서 교육과 새로운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참여율이 극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교육체제의 개혁을 이끌지 않는 한, 교육이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기후변화, 분쟁, 지속불가능한 소비, 빈부 격차의 증가 등이 교육에 미치는 궤멸적인 영향을 경고한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대한 변환이 필요하다.

이번 GEM 보고서 요약본은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 아래 교육의 전개 과정을 평가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이다. GEM 보고서는 야심찬 교육 2030 비전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정책, 전략, 프로그램 등에 대해 증거에 기반한 권고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접근, 참여, 이수, 학습,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교육 목표와 세부목표의 이행상황 각각을 파악하는데 따른 여러 어려움에 대해 논의한다. 이 보고서는 독자들이 모든 의사결정에서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GEM 보고서는 편집상 독립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출판물로서 교육의 진보와 과제에 대한 대화를 증진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수단이다. 이 보고서 시리즈는 2002년 이래 약 200개 국가와 영역에서 교육의 전개 과정을 평가해 오고 있다. GEM 보고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SDGs 교육 부문의 전개 과정을 점검한다는 책무를 안고, 앞으로 15년에 걸쳐 수행할 후속 조치와 평가 과정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